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UG 5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1982년 8월3일(화), 4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 Wednesday, August 3 & 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90만달러 신한인회관 계획

4개월에 $4만여 모금, 위원회 구성

모금·연방정부·현회관매각— $30만씩

「시작이 반」.

토론토한인회관 확장이전을 위한 모금은 지난4월말 캐나다히스·코리아 선랄 대회장에서 33명으로부터 거둔 13,450달러를 스타트로 7월 1개월간 30명으로부터 18,170달러를 모아 도합 31,620달러가 됐다.(이중 일부는 약정금).

30만달러 고지를 목표로 하는 관계자들은 "이 액수는 20 모바일·드라이브 소재 회관을 위해 모금운동이 8년만에 4만여 달러를 걷은 것에 비교하면 출발이 퍽 양호하다"고 30일 말했다.

교통이 나쁘고 강당이 좁아 불과 150명을 수용하는데다가, 최근에는월350달러씩 적자를 보는 이유로 한인회관을 이전키로 한 토론토한인회는 지난 6월13일 이사회에는 조한철 전 한인회장을 위원장으로 하

◆조한철 위원장

는 모금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회칙을 통과시켰다. 조위원장은 휴가를 이용, 7월 1개월중 임원들과 함께 60여 한인상점등을 돌며 모금했다.

조위원장 일행의 설명을 들은 교포들중 대부분은 확장이전에 즉석 찬성했으나, 일부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블루어·스트릿 이전에 반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조위원장은 "회관을 블루어·스트릿으로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가 없는 교민도 쉽게 이용할만큼 교통이 좋으면서도 사무실 임대등이 용이, 흑자운영이 가능한곳이면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년내 30만달러 모금목표가 달성되면 연방정부로부터 같은 액수인 30만달러를 무상지원 받고, 현회관을 30만달러 정도에 팔아 90만달러 정도의 회관을 구입할 계획이다.

모금된 회관 확장이전금은 캐나다외환은행 블루어지점에 한인회 이름으로 정기예금됐다.

이 기금은 회관이전및 모금경비로만 사용된다. (회칙 8조)

확장이전금 회사자는 수표를 한인회(The Korean Canadian Association)앞으로 발행하고, 「회관기금」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제2차 회관이전 모금운동중 최고 회사자는 약정자로 신중화씨의 5천달러이다.

셔본·스트릿×던다스에서 상점을 경영하는 신씨는 5년간 매년 1천달러씩 낼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황대연씨(의사) $3천, 박인순한인회장·이창복(팬아시아식품 도매상)·박수영(나이아가라 농장)씨가 각각 $2천, 전 주캐나다대사 진필식씨등 6명이 각 $1천달러를 냈다,

현 한인회관의 신임 관리위원장 이영목씨에 의하면 최근 실업인협회가 회관에서 블루어·스트릿으로 이전함에 따라 임대료 월$350의 수입이 줄어 꼭 이만한 액수를 매월 적자를 보고 있다. 회관은 금년부터 연간 5천달러의 재산세를 내지않고 있다. 이것은 온타리오정부가 소수민족 회관을 면세해주도록 재산세법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돼있기 때문이다.

79년에 끝난 제1차 모금액 4만여달러중 회관 수리비등으로 일부는 사용, 현재 2만여달러가 남아있다.

회관이전 모금위원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임원진

위원장: 조한철
부위원장: 한덕창(1명 공석)
모금부장:장연대,윤승열 (1명 공석)
총무 : 윤영일,
재무 : 강공선
기획 : 최복기
홍보 : 임윤식

"전투 즉각 종식하라"

미대통령, 이스라엘에 촉구

(워싱턴)레이건 미국대통령은 이스라엘에게 베이루트에서의 전투행위를 완전 종식시킬것을 촉구하고, 전 세계는 레바논에서 전투가 계속 고조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츠하크·샤미르 이스라엘외상과 20여분 회담끝에 레이건은 가장 최근의 휴전안을 협상에 의한 해결의 첫 단계로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샤미르 이스라엘외상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휴전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PLO가 서베이루트에서 완전철수해야 휴전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샤미르외상은 미국내 여론이 이스라엘에 불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언론의 편파적보도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레이건대통령은 "미국으로서는 현재 레바논의 전투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당서기장이 레이건대통령보다 강경한 처사를 촉구한 것을 일축했다.

PLO의 무장철수 방안에 협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주말인 1일 14시간동안 서베이루트에 맹폭격을 가했다.

서베이루트주재「캐」대사관

연방외무성 즉각철수명령

(오타와)연방정부는 서베이루트에 남아있는 마지막 서방 외교관인 캐나다대사 데오도르·아르칸드씨의 빠른 철수를 촉구했다.

막·맥기건외무상은 2일 서베이루트의 캐나다대사관을 일시적으로 폐쇄조치하고, 아르칸드대사및 6명의 직원들의 철수를 명령했다.

아르칸드대사는 지난 수일간 이스라엘의 무차별 포격행위를 비난, 서베이루트 주민들을 격려해왔다.

맥기건외상은 철수명령이 아르칸드대사와 연방정부와의 견해차 때문이 아니라 대사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부산 일본영사관 폭파 위협 전화

(부산30일=연합)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부산 일본총영사관을 폭파시키겠다고 전화로 위협했다.

29일 하오 협박전화를 받은 한국인직원은 "자칭 한국민주방위연맹의 일원"으로 일본 총영사관이 8월1일까지 교과서 역사왜곡 사건에 공개사과하지 않을경우 영사관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산 경찰은 사복형사를 포함한 20여명의 경비원을 영사관주위에 배치했다.

지난 29일 아침에는 전날밤 외부에서 날아온 돌로 영사관 전화교환실의 유리가 한장 깨져있는 것이 교환수에 의해 발견됐었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역시 하키의 명문 휘문"

2차전서 화랑에 6:5 역전승

토론토를 방문중인 휘문고팀이 화랑및 케네디안팀을 연달아 물리쳐 기염을 토했다.

토론토에서 하키를 연습하기 시작한지 단 1주일만인 지난30일 체스웃·아레나에서 가진 휘문고 대 화랑의 2차전은 "역시 하키의 명문 휘문"임을 새삼일깨워준 한 판이었다.

1차전에서 5:2로 화랑에 눌려 캐나다하키의 맛을 본 휘문은 이날 2차전 1피리어드에서 2:0으로 눌렸으나, 라이트·윙의 강보현, 레프트·윙의 이종두군의 대활약으로 제2·3피리어드에서 각3점씩를 기록 6:5로 역전승했다.

1피리어드에서 2:0으로 리드하자 느슨해진 화랑은 2·3피리어드에서 맹렬히 따라붙는 휘문에 덜미를 잡혀 주저앉았다. 화랑은 최상길·이승우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휘문고는 29일저녁 케네디안 코치 폴·토코프씨의 팀과 가진 경기에서 7:4로 승리를 거둔바 있다.

지난1일까지 8일간 맹연습을 한 휘문고팀은 4차례의 경기에서 3승1패를 거두고 전 경기일정을 마쳤다.

2일부터는 그동안 사귄 화랑팀의 선수들의 집에서 민박을 하며 관광하다가, 오는 5일 하오 6시1분 뉴욕을 향해 출발한다.

토론토의 공식일정을 마친 임병철코치는 3일 온타리오하키협회를 방문, 한·카 하키교류문제등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휘문고의 김태식교장은 "초청해 주신 아이스하키협회 관계자를 비롯, 교포팀의 학부형, 교포, 동창회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토론토에서 닦은 실력을 한국하키의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격침 영컨테이너선건조

한·일업계 경쟁케

입찰가 인하키로

(런던) 영국정부는 포클랜드전쟁에서 격침당한 커나드사의 대서양 컨베어컨테이너선을 대체건조하는데 있어 영국조선업계가 한국및 일본조선업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가를 인하시키기로 했다.

지난주 초 영국조선업계는 이 선박을 건조하는데 8천1백만달러의 액수를 요청한 반면 한국은 5천9백40만달러 그리고 일본은 6천1백20만달러를 입찰가로 신청했었다.

◆베이루트를 침공중인 이스라엘 병사들이 베이루트 공항의 잔해들 주위를 걷고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란콤 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IATA

여름철 특별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 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 개방.
단: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FALLIS U-SAVE
CASH & CA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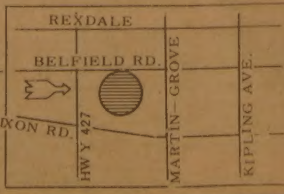
스 페 샬

⊙ Pepsi~Cola(can 10온스×24) $5.99
⊙ Diet Pepsi (〃) $5.99
⊙ Coca-Cola (〃) $5.99
⊙ Sunpac Juice $7.50

⊙ 이외에도 많은 SPECIAL 품목이 있읍니다.

* 영업시간 : 월~금(오전8시—오후4시)
토 (오전8시—오후2시)

151 BELFIELD RD. REXDALE, P.O.
TORONTO, ONTARIO M9W 1G8
Tel: 249-8411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2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역사는 솔직해야지···"

일본과학자 「사사가와」옹, 한국에 자선사업

◇··· 일본과학협회회장이며 선박진흥협회회장인 사사가와 료이지씨(83)가 30일 LA다운타운 뉴오따니호텔에서 본보와 특별인터뷰를 갖고 최근 말썽이된 일본교과서 내용등 한일관계에 대한 광범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반공투사이며 일본재계에 거물로 통하는 사사가와회장은 일본의 40여개단체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1년동안 세계평화복지기구에 1백억달러를 희사한 화제의 주인공이다. 그는 한국의 나환자, 상이군인등을 위해 회관을 건립 회사하는등 많은 봉사활동을 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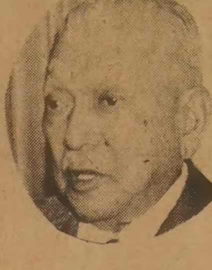
(LA지사=박희서기자)사사가와회장은 지금도 매년 2천5백억엔의 기금을 일본의 사회사업에 회사하고 있으며, 매년 70억엔을 세계평화와 사회복지를 위해 회사하고 있다.

그는 수차 한국을 방문, 농촌에서 벼베기도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한인들과 친숙하게 지냈다.

더구나 보사부를 통해 성나사로 병원을 지어 나환자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으며, 얼마전에도 대구를 방문, 재향군인회관 기공식에 참석한후 대구상이군인 병원설립 비용으로 6억원을 회사했다.

오사까의 한 정종제조회사 사장의 맏아들로 태어난 사사가와옹은 공산주의는 전염병이며, 공산주의자는 바이킹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등 일본을 반공세력 중심인물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최근 발생한 일본의 교과서개정 문제에 언급, 일본이 한국과 이웃에 살면서 왜 속이고 숨기는지 모르겠다고 전제하고 잘했든 못했든 후손에게 사실을 가르쳐주는 솔직함이 아쉽다고 말했다.



◆사사가와 회장.

교포문제에 언급, 그는 일본과 한국이 형제자매나 마찬가지이므로 이곳에서도 서로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신조를 오히려 유태인컴뮤니티가 높이 인정, 상을 주기도 했다.

1백50여명의 불교자를 이끌고 곧 방한할 예정인 사사가와옹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세계의 빈곤을 물리치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 교과서 왜곡

출판사에 책임돌려

(도쿄) 일본정부는 29일 최근 발행한 교과서가 말썽을 빚자 중공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2차대전의 침략적 잔인성을 담은 문제의 교과서발행을 사설출판사의 잘못으로 그책임을 전가시키고있다.

서울에서는 3백여명의 시민들이 주일대사관으로 몰려가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고 부르짖으며 데모를 벌였고 국회는 이문제를 정치문제화 하고있다.

중공정부당국도 일본이 중국대륙침략을 미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곧 중공을 방문하는 젠꼬·스즈끼 일본수상에게 공식해명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일본정부당국자는 교과서내용이 일본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533-2361

영국왕실 시종들 동성연애 만연

(런던)영국 왕실 시종들간에 번지는 동성연애때문에 사직했다는 버킹험시종은, 최근 사임한 여왕 수석경호원 마이클·트레스트레일은 노골적으로 게이마피아(동성연애마피아)로 불리웠다고 말했다.

데일리·미러지 3일자는 궁내에서 밤마다 일어나는 시종들간의 동성연애 소동은 구역질이 날 정도이며, "문에 의자를 대놓지 않으면 내 침대에도 누가 슬쩍 들어와 자고 있을지 모를 판국"이라고 전직 시종이 폭로했다고 말했다.

이 왕실 경호원은 12년간 "트레씨"로 불리우는 남창과 관계했음을 시인한 뒤 사임했었다.

범죄 소탕령

3일, 1만5천체포

(서울30일=연합)한국치안국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국범죄자소탕령을 내려 15,68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체포된 자중 3,295명은 정식구속되었으며 6,190명은 불구속입건, 6,196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조직폭력배가 12,846명으로 81.9%를 차지, 가장 높고 절도·강도 혐의자가 1,786명, 해외이민및 고용사기가 1,049명이다.

◆세계에서 가장 맑은 물을 자랑하는 캐나다의 와사가 비치.

호수많고 물맑은 나라

우리가 선택해서 이민온 나라 캐나다에 관해 독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컨대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가 토론토 시내 영·스트릿이라던가, 와사가 비치가 세계에서 가장 물이 깨끗한 강이라는것, CNE(Canadian National Exhibition)가 세계최대규모의 연예박람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미 캐나다의 자랑거리 115가지를 소개한 칼럼「캐나다를 압시다」를 인기리에 연재한 바 있는 본지는,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퀴즈를 통해 캐나다를 압시다」를 싣는다.

이민의 문화적·사회적자아(Identity)를 밝혀가려는 본지는 앞으로도 계속 캐나다를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와같은 기사를 보다 많이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퀴즈를 통해 캐나다를 압시다 ①

◉「캐나다」란 말은 어디서 유래됐는가?

이로키언(Iroquian:북미원주민)말인 "카나타(Kanata)"에서 나온것으로 "마을"혹은 "지역사회"란 뜻이다.

◉3명의 캐나다 여배우가 3년계속 아카데미상을 탔다. 누구 누구인가?

토론토 태생인 메리·픽포드가 1929년, 코부그의 마리·드레슬러가 1930년, 몬트리얼의 노마·쉐어러가 1931년 수상, 3년계속 캐나다 여배우가 아카데미상을 탔다.

◉캐나다보다 더 많은 호수를 가진 나라가 있는가?

없다. 캐나다는 캐나다를 제외한 전세계의 호수를 합친것보다 더많은 호수를, 또한 세계의 맑은 오염안된 물의 3분의1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인으로서 영국수상이 된 사람은?

1922년 영국 수상으로 선출된 앤드루·보나르·르씨. 그러나 그는 1년뒤인 1923년5월 별세했다.

◉지금가지 캐나다인으로 노벨상을 탄 사람은 몇명이나 되는지?

4명. 1923년 인슐린을 발명한 프레데릭·G.·밴팅과 J.J.R.·맥클레오드가 노벨화학상을 공동수상했고, 1957년 레스터·B.·피어슨 캐나다 수상이 1956년의 수에즈운하사건 당시 평화유지를 위한 공헌으로 평화상을, 1971년 저하르드·허즈버그가 다시 화학상을 탔다.

◉세계최초의 해외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전화를 발명한 온타리오주 브랜포드출생의 알렉산더·그램·벨이 1876년2월14일 영국과의 최초의 통화는 온타리오주 해밀턴에 있었다.

◉세계2차대전 이후 캐나다로 온 이민자의 수는?

350만명.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는?

뉴펀들랜드의 세인트·존즈. 패백시는 유일의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이다.

(계 속)

「바바라」에 물으세요

▲필자.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성가신 이웃···먼저 조용한 해결방안 찾기를

앓아누운 이웃에대한 마음표시는 우선 카드로

○문: 저는 캐네디언 이웃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10세, 12세, 14세된 남자아이를 둔 캐네디언과 이웃하고 살고 있읍니다. 이들은 거의 비행 소년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항상 무슨일을 저지르는데 한번은 부엌창문으로 내다보니 이들이 우리집 마당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었읍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 자동차에 달걀이 던져졌는데 틀림없이 그들의 소행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더이상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들의 부모를 만나도 효과가 없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니펙에서 Mr.조〉

●답: 귀하의 말에 따르면 귀하의 이웃에 마구자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읍니다. 이런 일들은 극히 일상적인 것이어서 제가 귀하의 경우라면 그것을 개인적 문제로 삼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상당히 성가신 일이지요. 부모를 만나도 별 효과가 없는것은 아마도 부모가 자기자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를수도 있거나 아니면 알아도 어쩔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만약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가 있었다면 이것은 경찰이 개입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할 일은 침착하게 더 기다려보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귀하가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피롭히면 그들에게 좋아하지않는다고 표현하십시요. 그러면 그들은 흥미를 잃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조용하고 침착한 말로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십시요. 그리고 부모와의 접촉을 완전히 포기하지 마십시요. 저의 짐작이지만 부모들은 자식들이 골치를 썩이지 않기를 바랄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좋은 유대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십시요.

○문: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중년의 캐네디언부부와 친구로 사귀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허물없는 사이라 그들의 이름인 스텐리와 마가렛을 일상생활에서 부릅니다. 한번은 전화를 했더니 마가렛이 그동안 신경통으로 고생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집에서 문밖출입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텐리에게 너무 자세히 물어보거나 전화하기도 어색하고 또 직집방문하기도 실례인것 같읍니다. 저는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 무어라고 해야 좋을지요?

〈마캄에서 송〉

●답: 아름다운 카드 한 장을 보내십시요.

이 카드에는 「Thinking of you····」 또는 「Just thought I'd drop a line···」등등의 글자가 있는 것이면 좋고 여기에 몇줄 적으면 더욱 좋겠지요.

이때 귀하는 그녀의 건강과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다는 말을 쓰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마가렛에게 좋은지를 모를경우 절대로 과장하지 마십시요.

마가렛은 전화 할 수 있다면 곧 전화를 해올것이며 전화할 상태가 못되면 걸지 않을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간혹 사람이 몹시 아프면 외부인들과 일체 접촉을 안하고 있읍니다. 이점은 한국의 경우와 아주 다르지요.

그래도 그녀는 건강상태가 어떻든간에 귀하를 고맙게 여길것입니다. 만약 스탠리로부터 그녀의 건강이 더 악화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꽃을 보내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탠리에게 방문해도 좋으냐고 물어보고 그의 대답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교 민 동 정

◆김종욱=학창시철 육상선수, 토론토에서는 토론토한인천주교 회장(신자대표), 고려대동창회장등을 지낸 김씨가 31일 2남 진영군을 결혼시켰다. 현재 토론토대학에 재학중인 진영군의 결혼 피로연은 이날 하오6시부터 트라이엄프·호텔(킬·스트릿×HWY 401)서 열렸는데 "인상깊은 피로연"이었다고 하객들은 이구동성 말했다.

헤드테이블에는 신랑과 신부 정혜양을 비롯, 김씨의 5남2녀와 둘노리가 앉았고, 김씨 부부, 서울서 온 신부 부모는 일반석에 앉았다. 남매가 전부 옷을 잘 아입고 북과 기타를 치며 디스코를 멋지게 추자 신랑도 합세했고, 나중판에는 휜드레스 차림의 신부도 달려왔다.

신부는 도중 쪽도리등 일체의 옛날식 의복의 입은채 패백을 드렸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가는가?

이 태 영 (개혁장로교회 교인)

이곳 토론토에 한인계 교회가 많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도 많아져서 외형적으로는 기독교가 이곳 한인사회에 널리 전파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실상은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이는 마치 옛날 유대왕 히스기야시대와 같아서 그들의 종교가 심히 팽창, 융성하여 어떤 유대인 랍비는 그 시대를 가리켜 "메시야의 시대"라 할 정도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는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었고, 그들의 연일 대회로 모이는 것과 드리는 바 수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요, "내 마당만 밟는"인간종교에 불과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스려버림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성서에서 볼 수 있다.

이 시대,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실상을 생각해 보기 전에,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먼저 자신이 왜 교회에 나가며,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에 나가는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 정신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가?

그의 그 기대는 산산히 부서져, 축복은 커녕 오히려 큰 손실과 화를 자초할 것이다.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하여 나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파렴치한 공리주의자들을 배격하실 것이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나간다면 그는 친구를 잃고, 그로 인하여 큰 상처를 입을 것이고, 여러가지 교회활동과 사업에 흥미를 느껴서 나간다면 그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오해하면서 일생을 낭비하고, 종국에는 버림을 받을 것이고,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미신에 끌리어 교회에 나가는 자는 일생 미신적인 공포에 얽매여 병적인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멸망할 것이고, 이 착잡한 세상에서 정신적이나마 다소 위안을 얻기 위하여 나간다면 위안은 커녕 더 큰 갈등과 불안에 싸일 것이다.

그가 만일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더 큰 정의를 짓밟아,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며, 왜 나가는가?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신성하게 생각하며 나가야 한다. 교회를 운영하는 교역자에서 일반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서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것이다. 즉 도덕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순결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 특히 교회 안의 그릇된 사상이나 신학은 교회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독소와 같은 것이고, 종국에는 교회를 "배교"의 길로 이끈다. 그리고 교회내의 인간종교적, 신비주의 경향은 교회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복음의 참 자태를 가리워 교회를 사탄의 도전 앞에서 무력케 한다.

또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선포하며, 죄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한다.

우리가 나가는 교회는 과연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지?

오히려 파괴하고나 있지 않는지?

바른 진리를 전하는 대신에 그릇된 것을 전파하여 자신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지나 않는지?

참으로 해야할 일들을 게을리하고, 그대신 수없는 인간종교 활동에다 교인들을 몰아넣어 참된 기독교를 생각하거나 배울 여유도 주지 않고, 교인들의 정상적인 사고활동을 마비시키고 있지나 않는지?

우리가 참으로 주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잠깐 멈추고, "나는 교회를 어떻게 알고, 또 왜 나가는가?"를 반성하고, 그릇됐으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가지 명확한 사실은 교회를 부정당하게 다니거나 운영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리요···(히브리서 2:3)".

제1회 교회음악 강좌

본 대학에서는 평신도 여러분들에 교회음악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 1회 교회음악 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2년 8월3일, 10일, 17일, 24일, 31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9시 50분까지 (5주동안)
◉장 소: 754 INDIAN RD.(오순절장로교회)
◉강좌내용: ▲성악-발성법, 발성연습및 지도(이주연교수 담당)
▲교회음악사-교회음악의 유래및 발달과정 연구(유희자교수 담당)
▲성가대운영론과 실제-성가대운영 방법론및 찬송가 해설(박재훈교수 담당)
◉참가대상: 교회음악에 관심이 있는분, 일반교우, 성가대에 봉사하는 분들.
◉등록일자: 1982년 8월3일 오후5시30분까지
◉회 비: 1인당 $70
◉등 록 처: 754 INDIAN RD.(본 대학 서무과)
◉문의및 연락: 762-1495, 493-8894, 745-7370

1982학년도 미주장로회 신학대학(토론토 캠퍼스)

신·편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하오니 사명있는 많은 분들의 응모있으시기 바랍니다.

과정	과 구 분	자 격	수업연한	취득학위	특 전
학위	교역(신)학석사 (M.Div)	①수세후 2년이상자 ②정규대졸업자, 동등이상자	3	교역(신)학 석사 (M.Div)	①졸업후 총회고시를 거쳐 노회에서 안수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와 모국총회산하에서 활동한다.
	신학사과정 (B.A)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문학사 (B.A)	①졸업후 교역학, 기, 교육학과 2년에 편입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산하에서 전도사가 된다.
	교회음악과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교회음악학사 B. MUC.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교회음악석사	①음악학사 학위소지자 ②수세후 1년 이상자	2	교회음악석사 M.C.M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비학위	성서과	학력제한 없음 ①수세후 1년이상자	2	수료증(노회인정)	졸업후 심사하에 본교에 진학할 수 있음.

1) 원서교부, 접수: 본대학교무과(오순절장로교회)
및 시험 장소 754 Indian Rd., Toronto, Ont.
M6P 2E3 전화: (416)762-1495
2) 원서접수마감일: 1982년 9월6일(월) 오후5시30분
3) 전화문의할 곳: 762-1495, 746-2870, 745-7370, 881-7162, 493-0615
4) 구비서류: 1. 입학원서
2. 최종학교졸업증서및 성적증명서
3. 당회장 추천서
4. 사진 3매 (명함판)
5. 전형료 $50.00 (시험당일 지참)
★시험과목: 성경, 국어, 역사, 일반상식
5) 시험일시: 1982년 9월6일 오후6시부터
시험장소: 본대학 강의실
6) 합격자발표: 1982년 9월6일 당일발표
7) 수업시간: 월, 화, 목 오후6-10시
8) 등록금: 학위과정 학점당 30불, 비학위과정(성서과) 100불
9) 개교일시: 1982년 9월7일 오후6시(신입생 Orientation)

★본대학 교육기본방침
1. 미주한인장로회총회 헌법에 기준, 교역자 양성과 평신도를 훈련한다.
2. 장로회신학대학(서울 예장통합측)과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한다.
3. 소명의식이 투철한 인재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주어 복음사업에 동참케 한다.
★학장자문위원(Consultants)
1. 이종성 박사(장로회 신학대학〈서울〉학장)
2. Dr. Michael D. Ryan(Prof. of Drew Unv.)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토론토분교장 최 양 선

〈재미 600연예인의 현주소〉 (3)

출연료싸도 연예활동 계속
사업실패도 하고, 공장에도 나가

그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나?

◉뉴 욕

10만여명의 교포가 사는 이곳에는 1백여명의 연예인이 있다. 굵직한 자국을 남긴 인기인도 많다. 최무룡이 정착해서 현재 「뉴욕뉴욕」의 나이트클럽을 준비하고 있다. 남진은 교포 강정련씨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따고 현재는 귀국중이다. 「여인의 눈물」로 한때 심금을 울려줬던 리타김도 뉴욕에 있다. 조그만 피아노 살롱에서 노래하며 아직도 혼자 살고있다.

고국생각보다는 그의 노래와도 같이 여인의 외로움이 더 큰것같다. 국내서 한때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태진아도 이곳에서 살고 있고 그와 결혼했다 헤어진 배우 최정민은 꽃가게를 하고있다. 「꽃반지」의 가수 은희도 남진의 처남과 결혼해 살고있다. 가수 하남궁, 송난희도 피아노바에서 노래하고 있으며 사회자 지미도 비디오회사의 프로제작일을 돕고있다.

4개월전에는 영화감독 전우열, 배우 윤세희부부가 이민을 와서 자리를 잡으려하고 있다. 가수 이상열도 뉴욕에 있으며 키보이스의 기타 조영조와 베이스 장명수도 나이트클럽서 3인조밴드를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서 연주하던 밴드맨들 80여명이 모여 뉴욕연예협회를 만들어 친목 활동도 하고있다.

◆왕년의 인기가수 남진, 은희등의 토론토 공연. 이들은 급작 결혼으로 사돈이 됐다.

◉샌프란시스코

3만여명의 교포가 사는 이곳에는 20여명의 연예인이 있다. 히식스의 리더로 각광을 받던 김홍택이 낮에는 꽃시장에서 꽃가게를 하고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기타연주를 한다. 후랭키손과 티나황도 이곳에서 살고 국내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화도 이곳 출신이다. 또 정훈희의 친오빠 정희택이 기타연주와 가수로 나이트클럽서 일하고 있다.

이숙도 미국에서의 첫 가수생활을 이곳에서 시작했으나 안개낀 샌프란시스코가 너무 쓸쓸해서 하와이로 떠났다. 근처 샌호제이라는 곳에는 정열의 가희 이춘희와 8군부대서 노른롤의 스타였던 미스K가 평범한 주부로 살고있다. 주로 밴드맨들이 많이 살고있다.

◉시카고

6만여교포가 살고있는 이곳은 15명정도의 연예인이 있다. 코미디언 이순주가 국내에서 쇼흥행을 하던 박영태씨와 결혼해서 「행복원」이라는 나이트클럽을 하고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던 이순주는 지난 5월에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으려 하고있다. 이밖에 국내서 괄목할만한 연예인은 별로 없으며 박선길, 전영식등 연주인들이 있다. 점블시스터즈 한멤버의 남편인 김희경은 나이트클럽서 섹스폰을 불며 「눈내리는 미시간호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면서 서울생각을 하고있다.

◉워싱턴

교민 4만에 연예인 30여명. 「전선야곡」의 원로 명가수 신세영과 그의 아들로 국내서 가수활동을 했던 신태일등이 있다. 검은나비의 싱거 양남기가 서울서 결혼한 미국인 부인 신디·킴벌리와 지난 5월에 왔다. 「해뜰날」의 송대관이 가족이민을 와서 쇼핑센터를 하고 있고, 탤런트 문관호도 있다. 이밖에 원광헌, 송준영, 이호경등 연주인들이 있다.

◉라스베가스

교포3천여명이 사는 이곳은 주로 그룹출신 25명정도가 살고있다. 김시스터즈, 김브러더즈멤버 각 4명과 국내서 서울패밀리로 활동했던 대한시스터즈와 코리언키튼즈 단원이 각 6명씩이 있다. 이들은 이따금 호텔쇼등에도 서고있다. 태진아, 최정민이 처음 이곳에서 살다가 뉴욕으로 이주했다.

◉휴스턴

3만여 교민이 사는 이곳에는 5명정도의 연예인밖에는 없다. 가수 송영란이 미국인과 결혼해서 가정주부로 있다. 유명한 무용가였던 황봉회가 또 미국인 남편과 살고있는데 식도암이 걸려서 성대를 자르는 수술을 받아 말을 잘 못하고 있다. 「목포의 눈물」의 작곡가 손목인이 피아노바에서 연주를 하고있다.

◉델라스

교민 1만5천여명의 이곳은 코미디언 김희자가 살고 있다. 81년 뉴욕으로 왔다가 82년도에 이곳에 와서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교회의 전도사로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있다. TBC에서 DJ로 활동하던 패티김의 8남매가족중 막내인 김정미와 연주인등 모두 6명정도 살고있다.

◉덴 버

배우 박노식과 가수 최숙자가 있다. 81년에 이곳에 온 박노식은 부인 김용숙씨와 4남매 전가족이 살고있다. 나이트클럽을 하다가 손해를 보고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할까 생각중이다.

「눈물의 연평도」의 최숙자는 8개월전에 이곳에 와서 공장에 나가고 있는데 한국사람과의 연락을 일체 끊고 있다. 가수 이숙의 가족도 살고있다.

◉하와이

교민2만5천여명, 관광휴양지인 이곳에는 연예인들이 미국에 오면 관광을 위해서라도 꼭 들르기 때문에 상주연예인보다 스쳐가는 연예인이 많다. 이곳에 살고있는 연예인은 이민온 탤런트 이동진, 코미디언 양훈, 가수 석찬, 작곡가 김중신등과 밴드맨 90여명이 있다. 이동진은 여행사를 하고 있으며, 양훈은 ABC여행사 부사장으로 있다.

덴버가 집인 이숙이 나이트클럽에서 그의 히트송 「슬픔이여 안녕」을 부르고 있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40〉

殺意斷層 ⑦

"내 전화를 거절하다니… 맛을 보여줄까…"

모세는 탁자 위에 두 다리를 쳐 걸쳤다。마치 남편이 하는 식으로。

『이거봐、안된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는 하고 싶은대로 하는 사람이야。나한테 이래라 저래라하지마。그런다고 해서 내가 들어줄 줄 아나? 바보 같은년…』

문자는 입술을 깨물면서 숨을 몰아쉬었다。

『어디 집구석이나 좀 구경할까。』

그가 몸을 일으키자 문자는 그의 옷자락을 움켜잡았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용서해주세요!』

날강도같은놈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였다。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애걸하고 있었다。

『용서해달라고? 흥、이제야 정신을차린 모양이군。내전화를 거절한 댓가가 어떤건지 기다려봐。나를여기까지 오게한건 바로 너야。』

그는 옷자락을 잡고있는 그녀의 손을 움켜쥐더니 비틀었다。문자는 손마디가 부러져나가는것 같았다。그렇다고 비명을 지를수도없어 입을 벌린채 얼굴을 잔뜩 이그러뜨리기만했다。

그는 아래 위층을 돌아보더니 아래층에있는 침실로 다시 들어갔다。

침실은 호화롭고 아늑하게 꾸며져있었다。방안에는 대형 더블침대가하나 놓여있었고 방옆에는 욕실까지 붙어있었다。그는욕실의 불을 켜본다음

『음、이만하면 됐어。』

하고 중얼거렸다。그리고나서 옷을벗기 시작했다。

『아、안돼요!』

『안되긴 뭐가 안돼。』

그는 거침없이 옷을 모두 벗어버렸다。그리고 안경도 벗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함께 목욕하지 그래。』

문자는 너무 기막힌 나머지 한동안 얼어붙은 채 그자리에 서있었다。그가 욕실로 들어갔다。욕실문이 닫혔다。잠시 후 샤워소리가 쏴하고 들려왔다。정신을 차린 문자는 급히 방에서 나왔다。가슴이 너무 뛰는 바람에 아프기조차했다。손지갑에서 만원짜리 지폐한장을 꺼내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손가락을 입에물고 멀거니 서있던 가정부가 화드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옥자야。』

부드럽게 불렀다。그녀가 가정부로 들어온 것은 2년쯤 되었다。얼굴은 못 생겼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했다。먼 일가벌되는 아이로 충청도 출신이었다。

『너… 이거 가지고 나가서 극장구경이라도 하고 와라。』

손에 만원을 쥐어주면서 어깨를 떠밀자 그녀는 어리둥절해했다。

『지금 11시니까 2시쯤에 돌아와。점심까지 아예 먹고와。』

『집은 어떻게 하고요?』

『집은 내가 보고있을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녀와。』

아무리 숙맥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다。범죄에 함께 가담하는 공범의식을 느꼈던지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리고 참、너……아무한테도 여기 남자손님이 왔다는 말해서는 안된다。알았지?』

『네、알았어요。』

『내가 영화 보고 오라고 내보냈다는 말도 해서는 안돼。알았지?』

『네、알았어유。저 남자 누구예유?』

『친척 동생되는 사람이야。자 빨리 가。』

가정부는 대강 옷을 주워입고 쫓겨나다시피 밖으로 나갔다。

朴 男 그림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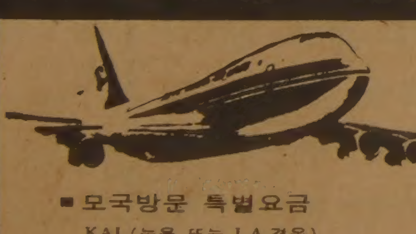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이민의 문화적·사회적 자아(Identity)를 밝혀가는 신문.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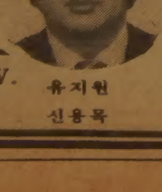
한국비디오센타
— 각종 비디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디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숙명여고동창야유회

숙녀회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녹음짙은 이 계절, 아래와 같이 야유회를 갖고저 하오니 부디 가족동반하시어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때 : 1982년 8월14일(토) 오전11시
곳 : Rawn Tree Mills Park
(앞문쪽으로 오세요)
※Islington & Finch W.
Finch에서 1km북쪽 좌회전.
준 비 : 본회에서 점심(B-B-Q)과 음료일체를 준비합니다.
회 비 : $20
문의처 : 회장(김봉진 Mrs. Lee)
☎ : 820—0483
총무(이란희 Mrs. Kim)
☎ : 828—6711(R)
964—8682(B)

※아직 동창회 명단에 오르시지 않으셨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숙명여고 토론토동창회

브라질 "봉디아" 친목회

브라질에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금번 제4회 친목및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온가족 동반하시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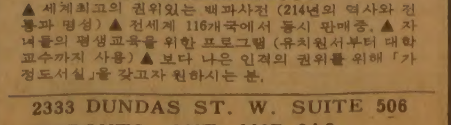
시 일 : 1982년 8월 7일(토) 11시
(음식은 각자지참)
장 소 : Sunny Brook Park
(축구장옆, 마지막 주차장)

♣오락과 상품이 준비되었음.
연락처 : 성용창 759—3583
박정환 533—7759
♣우천시는 다음주로 순연함.

봉디아친목회
회장 성 용 창

YOUR KEY TO THE FUTURE
†당신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ICA

NEW ENCYCLOPAEDIA BRITANICA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전30권

▲세계최고의 권위있는 백과사전 (214년의 역사와 전통과 명성) ▲전세계 116개국에서 동시 판매중. ▲자녀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유치원서부터 대학교수까지 사용) ▲보다 나은 인격의 권위를 위해 「가정도서실」을 갖고자 원하시는 분.

2333 DUNDAS ST. W. SUITE 506
TORONTO, ONT. M6R 3A6
☎ (416)461—3363 송 영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政府, 79년부터 "歪曲" 시정要求

日文部省에 수차례, 그때마다 誠意안보여

이미 發刊47종 誤謬수두룩

6·25→朝鮮戰爭 동학革命→內亂

한국문제에 대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기술은 이번 뿐만 아니라 이미 발간된 역사교과서에도 많이 나타나 있어 우리정부가 이를 수정토록 요청했음이 30일 밝혀졌다. 지금 검정중에 있으면서 말썽이 난 역사교과서는 내년도부터 사용될 것이지만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들은 이미 발간돼 초·중·고등 각급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것. 정부는 지난 79년 일본역사교과서를 전부 입수, 정밀분석한 끝에, 역사 사회교과서의 거의 대부분인 47종의 교과서에서 왜곡표현된 부분을 발견, 그동안 일본 문부성 역사학회 출판사등에 수차례에 걸쳐 수정해 줄것을 요구했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받은 일본의 관계부처는 한번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오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 별로보면 東京書籍발행의 「밝은사회」 6년용1학기책(海後宗臣외 28명)에는 정치적 명예욕과 지배체제의 확립을위한 豊臣秀吉의 임진왜란에대해 「明나라를 정벌키위해 한국에대군을보냈다」고 기술했고 같은책 163면에는 서울을일제하의 「京城」으로, 한국동란을 「조선전쟁」 등으로 왜곡표현했다.

마찬가지로 大阪서적의 국민학교6년용 사회책에 임진왜란과 甲午동학혁명에 대해 농민내란등으로 잘못 표현했으며 中教출판사간 「소학생은 생각한다」라는 사회책에 「야마또(大和) 조정은 4세기말 조선반도 南韓에 세력을 두었고 조선반도에 중국인이 건너와 뛰어난문화를 발전시켰다」고 기재했으며, 學校도서간 국민학교 6년용 사회책에 역시 「5세기 중엽의 야마또국가의 내왕은 백제와 힘을합쳐 신라와 싸웠다」「6세기가되자 신라는 강해져 九州의 부족과 결탁, 야마도(大和)에 대한했다」「大和태자는 신라와의 싸움을중지했다」고 마치 실제 大和조정이 한반도에 건너와 한민족을 정벌한 것처럼 왜곡했다.

마찬가지로 教育출판사간 6년용「신판사회」, 일본서적간「中學社會」, 東京서적간의 사회책등도 大和정벌론을 역사적사실처럼 다뤘다.

한편「中學社會」교과서에는 德川家康이 「쇼군」(將軍)에 취임하자 「조선이 축하사절을 보냈다」고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축하사절이아니라 통신사절을 파견한것을 과대표현한 것이며, 강화도사건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연안에서 연습과 측량도중조선군에 포격당했다」고 雲揚號사건이 마치 항해도중 조선으로부터 불법포격을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또 「淸은 17세기부터 조선을 보호국으로 지배했다」고 「속국」「보호국」이란는 표현을써 주체성이없는 것으로 표현했다.

秀英출판사의 고등학교용 세계사에는 「만국에는 이미 後漢시기 퉁그스계의 고구려가 일어났다…」라고 기재, 고구려만이 퉁그스족의 국가로 지적, 신라 백제 삼한과는 민족적으로 다른것처럼 표현했고 「고려는 대외적으로 宋에 복속하고 遼에도 복속했으며 13세기에는 몽고침략을받아 그지배하에 속국이 됐다」고 기재했다는것.

이밖에도 大阪서적 中教출판사 教育출판사 清水서원 三省堂 帝國서원 實教출판사 山川출판사 自由書房 秀英출판사 등 20여개의 출판사가 발행한 초·중·고용의 社會·일본사·세계사 등에도 왜곡표현을 해놓고있다.

教聯서도6년전에 日에 의견서보내

대한교련은 지난 76년9월 일본교과서의 한국문제왜곡에대해 「일본사회과 교과서 검토의견서」를 제출, 시정을요구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교련은 일본의 교과서관계자인 稻垣房男(사단법인 교과서협회장) 日下正衛(〃 사무국장) 德山正人(재단법인 교과서연구센터 상무이사) 福田俊夫(일본서적주식회사 중등사회과편집장) 三輪純人(大阪서적주식회사 편집부장) 竹內坊郎(주식회사 講談社인문과학출판부 부장)을 초청, 일본교과서의 한국관계왜곡부분의 시정에대한 협의를했었다.

韓民族에대한 멸시와 挑戰

3·1獨立運動을 否定的으로

日교과서문제 公聽會 열려

日本역사교과서의 한국관계 歪曲과 일부閣僚들의 妄言에 대한 국민의 憤怒와 여론이 高潮되고있는가운데 일본의 歪曲배경과 底意를 규명하는 公聽會가 30일하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3명의主題발표자와토론에 참가한 各界인사들은 ▲일본정부가 역사歪曲을 적극主導한것은 侵略史實을 否認, 독립한국에대한 멸시와 도전이고 ▲對아시아政策을전환, 新軍國主義의 대두를예고하는 것이며 ▲한국및 아시아各國에대한 好戰性復活 ▲일본의 對韓고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저의라고 규탄했다.

「日本교과서의 한국관계 記述의 문제점」이란 주제를 발표한 愼鏞廈교수(서울대)는 『日本의 이번교과서 修正은 日本정부가 表現만을 바꾼修正지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치관을 顚倒케하는수정지시를한것』이라고 지적하고 『舊교과서와 본래의 원고에서 否定的으로 부당하게 보았던 日本군국주의의 한국침략을 새일본교과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당연하게보는 가치관을 정립케하고 반면에 종래 긍정적으로 서술했던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을 새교과서에서는 否定的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가치체계를 도입하고있다』고 말했다.

愼교수는 이어 한국관계史에서 왜곡된 사례 10항목과 創氏改名, 여자挺身隊, 供出制度, 差別賃金制등 새 교과서에서 제외하고있는 4가지 「外面事例」를 지적, 설명하고 『한국史 歪曲이 일본정부에 의해 적극적, 통일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점이 일본정부의 對아시아정책의 轉換을 시사하고 있는것』이라고 주장했다.

愼교수는 또 『주로日本학자들이 주장하는 任那 日本府說은 고대의 것이기때문에 과거의 것으로 영향을 축소할수있는 것이었는데반해 이번의 歪曲敍述은 현대의 일제침략을 정당화하고있어 현실에 너무 직결돼있어 日本 신군국주의의 대두를 고취하고 한국의 독립에 危害를 加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否定的으로 다루고있는 것은 민족의 독립운동과 해방투쟁, 獨立국가건설운동을 부정적으로 본것이며 그후에 건설된 독립국가를 보는 관점과 태도에도 연결되는 심각하고 중대한 의미를 갖는것』이라고 경고했다.

李進熙교수(在日 史學者)는 『日本교과서의 改惡은 自民黨의 文敎部會와 文部省이 3년전부터 책동해 온것』이라고 규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日本의 한국史연구관계자들은 크게 우려하며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있다』고 전했다.

李교수는 또 이같은 日本의 한국사연구학자들이 교과서의 歪曲에대한 시정운동을 앞장서서 벌일수있도록 도와줘야한다』고 강조하고 『日本내의 여론이 높아져야 사태가 달라질수있다』고 주장했다.

「日本인의 對韓觀에 문제점」을 발표한 金學俊교수(서울대)는 『日本人의 施惠意識은 한민족에대한 착취와 수탈을 施惠라고 강변하고 있으며 이를 잘나타내는것으로 자신들이 한국에 철도를 놓아주고 전기를 가설해 주는등 근대화를 선물했다는 주장을 들수있다』고 말하고 『日本人의 이러한 施惠의식은 日帝의 패망이후에도 거의 바뀜이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내부에 도사리고있는 일제잔재의 완전한 청산이 있어야한다』고 말하고 『對日외교에 있어서도 주체성의발휘가긴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하오 世宗문화회관대회의실에서 열린 日本역사교과서 歪曲문제공청회엔 光復會등 7개단체회원 3백여명이참석, 史的고찰등을통해 日本의 對韓침략성과 역사歪曲을 신랄히 비판하고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日에 곧公式입장 전달

閣議 文部省통보 신중검토후

정부는 30일하오열린 국무회의에서 日本역사교과서의 한국관계 歪曲문제로 야기된 문제해결을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종합대응책을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관계장관들로부터 이번사태에대한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對應策과 日本정부가 그동안 표명해온 입장, 국내여론등을 보고받고, 특히 이날 하오에 駐日한국대사관에 전달된것으로 알려진 日本文部省의기본입장을 토대로 앞으로의대처방안을 강구한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는 특히 中共의공식항의에도 불구, 日외무성이 유감만 표시했을뿐 歪曲부분 수정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하지않은점등을 감안, 한국측에도 이와같은 선에서 회답을 보내올것으로 전망돼 지금까지 정부가취해온 외교적조치를 개검토,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협의한것으로 알려졌다.

한고위소식통은 30일상오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日本교과서의 왜곡기술을 시정하기위해 다각적인 접촉을 벌여왔다』고 밝히고 『금명간 日本정부에의해 제시될 공식입장이 사태심각성을 경시하거나 단순한 입장전달에 그칠경우 정부로서는 보다 강경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말하고 日本文部省이 30일중으로 駐日대사관에 교과서검정배경을설명하고이해를 구한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이는 日本정부의 공식입장표명으로 보기는어렵다』고 말하고 『정부는 日本정부의 통일된견해를 보내주도록 日本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상오 李範錫외무장관등 외무부 주요간부들은 金相浹국무총리서리에게 업무보고를통해 이문제와 관련된 진전상황을 보고했다.

"다음檢定때에 最善"

日文部省教育局長, 李公使에 言質

【東京30日=宋孝彬특파원】 일본文部省의 스즈끼·이사오(鈴木勲) 초중등교육국장은 30일하오4시부터 5시까지 駐日대사관李相振공사와安商洙석교육관을文部省에서만나 『한국정부의 신중한 조치에 재삼고맙게 생각하며 韓·日友好관계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약속, 다음번 검정때 교과서내용을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李공사는 스즈끼국장의 이같은 발언이 是正 약속으로 볼수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국교과서문제에대한 최선의 조치는 是正으로 받아들일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韓英洙의원 辭退書수리

丁來赫국회의장은 30일 상오 간통혐의로 징역2년을구형받고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한 民韓黨 韓英洙의원의 사퇴서를 수리했다. 韓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이날허가됨에 따라 11대국회의석수는 2백75석으로, 民韓黨의석수는 81석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韓의원의 사퇴로 결원된 지역구의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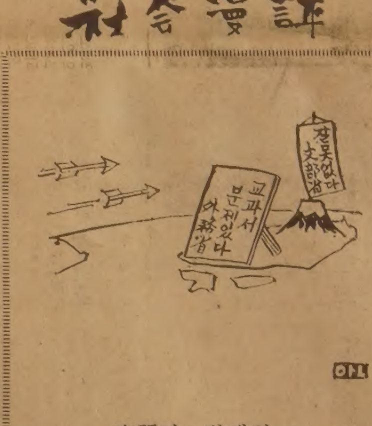
文公委 5일소집

국회는 오는 8월5일 상오10시 文公委를 소집, 정부로부터 日本역사교과서 史實歪曲문제와 이와관련한 日本일부각료들의 발언에대한 경위와 진상을 보고받고 정부의 대응책을 따지기로했다.

民正黨의 柳瓊賢수석부총무와 民韓黨의 林鍾基·국민당의 李東鎭총무는 30일하오 총무회담을열고 8월5일 文公委를 소집키로 합의했다.

興野총무들은 文公委외에 韓日經協과 교과서歪曲에 대한 외교적대응책을 따지기위한 外務委와 「7·3」경제조치에대한 보완책과 문제점을 추궁하기위한 재무·상공위소집 문제도 아울러 논의했으나 各黨의 주장이 엇갈려타결을 보지못했다.

社會漫評



本質과…방패와…

PLO 撤收결정

埃·시리아등 아랍 4國으로

【베이루트29日AP=聯合】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은 29일밤 서부베이루트에 포위돼있는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을 이집트·시리아등 아랍4개국으로 철수시키기위한 계획의 윤곽을 결정지었다고 레바논 정부및 팔레스타인 소식통들이 밝혔다.

레바논정부소식통들은 아라파트의장이 6천명으로 추산되는 팔레스타인 게릴라중 약 5천명을 이집트·시리아 및 요르단등지로 철수시킬수있을것으로 샤피크·알와잔 레바논수상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地平線

뉴스는 사람에따라 나라에따라 그평가가 달라진다. 국제뉴스도 마찬가지다. 세계사람들이 모두 보편적인관심을 갖는 중요뉴스의 경우에도 地域, 理念, 思想, 價値觀의 차이로 크게 또는 작게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차분히 보도될 때도 있고 선정적으로 다루어지기도한다. 萬人이 다 好感을 갖고보는 올림픽뉴스마저 그비중이 너무 다르게 보도되는데는 놀라움을 자아내게한다. ▼88년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공식발표가 한국에서는 환희와함께 모두 신문의 一面톱기사로 보도되었으나 미국신문들은 이뉴스를 一面에조차 신지않았다. 대부분의 미국신문들이 이를 스포츠面에 보도했고 그마저도 크게 다룬 신문은 드물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지만이 1面에 標題를 비치고 기사는 스포츠면으로 돌렸었다. 물론 보는 눈이나 처지에 따라 견해가 다를 터이지만 미국신문들의 서울올림픽 개최 보도 자세는 우선 바르지 못했다고 말하고싶다. 韓半島의 分斷된 상황 아래서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는 정치적 意義와 波長을 미국 신문들은 지나치게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요즘 미국신문들은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침략의 史實」은국내문제 아닌역사」라고 표현한것은 세계사람들의 共感을 자아낼 법하다. 「眞珠만 기습은 망각」하고 「히로시마 原爆投下」만 상기시켰다고 一針을 놓은 것도 일본 사람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했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侵略史實이 바르게 기록되어야한다는데는 우리나 미국사람들의 의견이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軍國主義化를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모든視角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생각할수 없을듯하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수립담당자들이나 관계학자들은 일본의 再武裝論에 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갖고있다. 保守경향을 짙게 풍기는 인사들은 소련군사력의 아시아팽창을 깊게 경계하는나머지 일본의 軍國化경향에는 그다지 큰 우려를 보이지않는다. 미국과 그 아시아友邦들의 反蘇聯合을 내세우는 레이건 대통령은 그런 保守主義者들의 先頭에 선다. 레이건의 反蘇聯合구상은 美—中共—日의 3角유대, 美—韓—日의 3角協力 그리고美—韓—日—中共—아세안—호주—뉴질랜드聯合에로 확대되어간다. ▼이런 맥락에서 헤아릴때 일본은 또다시 國粹주의·民族的우월주의·軍國主義·皇國체제로 복귀하려는 좁은 눈은 버려야 하지않을까. 日本의 매스컴은 특히 큰 시야를 펼쳐가도록 기대해 보고 싶다.

제12회 鳳凰大旗

고교野球 내일開幕

오늘(下午2時)서울運서 入場式 예행연습

주최 한국일보社·日刊스포츠·대한야구협회

533-2361 구독신청은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한국관

88 각종 중국요리는 : 진따이 (중국인 일류 쿡)
88 짬뽕, 짜장면은 : 정인기 (중식전문 요리사)
88 해장국, 곰탕은 : 김옥수 (한식전문 요리사)

회의실 완비

자신을 갖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기계로 뽑는 진짜 냉면은 역시 한국관!!

628 BLOOR ST. W. ☎ 536—0290

대표 나옥녀

「新軍國 부활」 底意 있다

日교과서歪曲 규탄·是正촉구 公聽會

日本의 역사교과서歪曲기도는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侵略·收奪행위를 糊塗한채 새로운 軍國主義를 부활시키려는 底意로 한국민의 憤怒를 사고있다. 30일 「對日역사歪曲규탄및 是正촉구 國民會議」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학자들의 主題를 통해 일본의 歪曲底意와 배경을 알아본다. 【編輯者註】

歪曲서술의 問題點

愼鏞廈 〈서울大교수〉

◇愼鏞廈교수

植民地 政策 자랑하는 顚倒된 價値觀을 형성
兩민족善隣관계 항구적 破壞요소

일본교과서가 한국史를 歪曲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舊韓末, 日帝시대부터 그들의 植民主義史觀에 의거, 한국史가 자주성이 없는 他律的인 것이었으며 정체적인 것이라는 논지를 정립해 교육해 왔다.

이러한 논지의 서술은 오늘날까지도 본질적으로 지속돼 이때문에 일본의 새세대들은 아직도 한국민이 古代부터 中國과 日本에 지배돼 온 자주성이 없는 민족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의 새일본교과서 한국관계서술에서 주목해야 할것은 修正의 본질이 價値觀의 顚倒이고 표면적인 형태가 표현의 수정 즉 字句나 용어의 수정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日本정부가 表現을 바꾼 수정지시를 할것이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치관을 전도한 수정지시를 한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例를들어보면 본래의 원고처럼 露·日전쟁후 일본이 한국을 「侵略」했다고 서술하면 이것은 부정적의미내용과 가치를갖는것이어서 피교육자는 일본제국주의, 군국주의의 한국침략과 식민지배를 부정적으로보고 不當하게 보는 가치관을 형성케된다.

그러나 이것을 새 일본교과서처럼 포츠머스조약 이후 일본이 한국에 「進出」했다고 서술하면 「進出」은 긍정적 의미내용과 가치를 갖는것이므로 현재 일본정부가 각부분에서 장려하는 가치이므로 피교육자는 日本군국주의의 한국침략과 식민지배를 긍정하고 정당시하며 자랑스럽게 보는 가치관을 의식, 무의식중에 형성케 된다.

또外交權과 日政權을 侵奪했다고 한것을 「接收」로 서술하면 「接收」는 당연한 권리의 行使일때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피교육자는 日本帝國주의의 한국침략을 당연한 것으로, 正當한 것으로 보는 가치관을 형성케되고 나아가서는 한국을 「보호국」으로 再接受할 잠재적욕구를 형성케된다.

새일본교과서에서는 歪曲해서도 가치관을 바꾸는데 도저히 맞출수 없는 역사적 史實들을 아예 제외해 버렸다. 例를들면 創氏改名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서에서 아예 빼 버렸고 女子挺身隊에 대해서도 고교교과서는 물론 대학교재들에서도 서술을 제외하고있다. 供出制度도 마찬가지이고 이밖에도 差別賃金制를 들수 있다.

이번 歪曲은 몇가지점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즉▲일본정부에 의해 強行된점 ▲역사적진실을 중시하지 않고 명백한 事實도 정책상의 지침에 따라 자의로 왜곡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필요에따라 진실을 왜곡하고 변조하고 위조하고서라도 힘으로 밀고나가겠다는 日本執권자의 新軍國主義의 대두를 나타내는 중대한 변화이다. ▲독립국가를가진 한민족에 害를 가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독립운동~민족해방투쟁~독립국가건설운동을 否定的으로 본것이다.

이 되는 87년이후에는 그志향을 새교과서가 가르쳐준대로 大陸進出로 독립가능성의 증대▲다음세대에 있어서 日本과 한국, 中國사이의 충돌, 전쟁발발가능성의 형성 ▲日本의 武力행사의 正當가능성 ▲한국민족, 중국민족, 日本민족간의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선린관계의 파괴 가능성을 높을수있고 단기적인 영향으로는▲일본에서의 한국민족에 대한 근거없는 멸시분위기의 조성과 강화▲한국민족에 대한 민족적 모독으로 인한 우호관계의 손상등을 들수 있다.

內政간섭 운운한 日本각료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의 국내사실에관한 서술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내정간섭이 되지만 바로 한국자기자신에 관련된 사실이 歪曲돼 있거나 中傷돼 있을때에 이의 교정을 요구하거나 항의하는것은 당연한 정치적 외교적 권리이며 내정간섭이 아니다.

日교과서 韓國史像

李進熙 〈在日史學者〉

◇李進熙교수

外部자극없으면 發展못하는 나라
被侵의 歷史만을 강조
"韓日合邦도 한국開化"

한국과 日本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이웃나라라 해서 항상 친선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희망적인 환상에 불과할 뿐 때로는 전쟁과같은 극한상황이나 소규모분쟁, 냉전과 같은 다툼이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툼도 상호간 최선의 사후처리를 통해 다시 친선의 관계를 지속할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러한 친선을 이루기 위해선 서로간의 이해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日本의경우 한국에 대한 이같은 근본적인 태도가 결여돼 있다.

최근 日本교과서 對韓관계 왜곡서술문제는 歷史學을 전공하는 교포史學者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왜냐하면 歷史교육이란 학생들의 인접國家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때문이다. 특히 이번日本교과서의 改惡사태는 史實에 어긋나는 교육을 하게함으로써 日本청소년들에게 국제사회와 협조하는 정신을 빼앗을 우려마저도있다. 또한 歪曲된 역사교육은 在日同胞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심화시킬요소가된다.

日本교과서에 서술된 韓國史像은 기본적으로는 日帝때 그들이 가졌던 對韓偏見, 즉 他律性, 停滯性, 獨自的文化가 없다는등으로 현재의 교과서도 왜곡서술돼있다.

그들의 日本史에 韓半島가 처음등장하는것은 벼농사(彌生文化)가 韓半島의 영향뿐 그들의 先進文化가 渡來人에의해 전수됐음을 회피하고있다. 그러나 4世紀서술에서는 소위 「任那日本府說」이란것을 만들어 그들이 出兵과支配, 大和政權복무로 여지묘사하고있다. 또 15·16세기 소위室町時代서술부분에선 우리측 遣明使(18회)만 서술하고 그네들 日本國王使의 우리나라60여회방문사실은 모두 삭제하고있다.

또한 그들 世界史교과서에 적으로 소위 「出兵」으로 표현한 日本의 침략사실은①任那日本府②壬辰倭亂③明治維新·征韓論등으로 기술되고있다. 壬辰倭亂때 많은 우리기술자(陶工)를 끌고가서 사역시켜이룬 경제발전을 日本에 「服務했다」는 형태로 묘사하고있으며 이와반대로 善隣관계와 이를통한 先進文化도입사실은 완전히 삭제하고있고 壬辰倭亂후 우리나라와 德川幕府와의 대등善隣관계를 무시하고 「鎖國」을 강조하여 儒學·醫學·회화분야의 전수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古代 渡來人의 역할(飛鳥文化·국가형성)은 삭제하고 歸化人부부로 왜곡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가 등장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예를들면 漢武帝에의한 漢四郡설치樂浪郡, 隋와唐의침입, 몽고의침략, 거란여진의침략, 壬辰亂등 「항상침략만 당했다」라고만 묘사했을뿐 어떻게 격퇴시켜 나라와 민족을 지켰으며 독자적인문화를 창조, 발전시켰는가에 대해서는 거의언급하지 않고있다. 이런연유로 그들2세들에게주는 隣接國家觀, 한국觀은 ①침략만을 받아온 약한나라, 보잘것없는민족 ②뒤떨어진 야만적국가 ③불쌍한 나라들이 나라부분서도 이러한 나라들으로 왜곡서술돼 『나라는 韓半島에 태어나지않아幸복하다』란 인상을 심어주고있다.

이번日本교과서개정은 日本文部省의 관리들도 문제가 있지만 소위 自民黨내의 文敎族들(文敎관계부처의 관리를 지녔거나 그쪽에 관계했던 前職인사들의 강력한 배후작용이 있었던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들은 「日本이 左翼的으로 되었다」(이들은 日本이 침략적이라고 말하면 좌경이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있다.

이같은 일부국수주의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외에 日本국민전체나 日本의 양심적인 학자들의 태도는 사뭇다를수도있다.

즉 일반日本국민들 사이에서는 종래에 볼수없었던 현상으로 연일 그들신문에 투서를 통해 왜곡된 國史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韓國史의 바른모습을 보여주고여론을 환기시키기위한 노력이 必要하리라본다.

이를위해 양국이 학술회의를 갖는등 우리측에서 노력해야할점도 있을것이다.

다만 한가지 짚고넘어가야할점은 이번 이문제가 양국국민간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몰아가는것은 현명하지못하다는 점이다.

對韓觀의 根本문제

金學俊 〈서울大교수〉

◇金學俊교수

日을 유럽一員 자처
한국 侮蔑의식 深化

日本교과서의 한국부분에 대한 歪曲,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측의 비판과 항의를 內政간섭이라고 반박한 일본文部相의 발언으로 한국인의 對日감정이 크게 나빠지고있다.

곰곰 따져보면, 韓國부분歪曲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日本人의 뿌리깊은 모멸의식 또는 優越의식에서 나온것이다. 그러면 日本人은 무슨 근거에서 그러한 對韓觀을 지니게 되었는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후쿠자와·유키찌(福澤諭吉)의 「脫亞入歐論」에서 찾을수 있다. 明治維新과 더불어 활발해진 近代化논쟁에서 후쿠자와는 일본이 아시아의 後進性을 벗어나 유럽化해야 한다는 발전모델을 제시했으며, 그의 영향아래 일본은 유럽의 文物制度를 크게 도입했고, 이에따라 일본은 아시아의 강대국이 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은 자신을 아시아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유럽의 一員으로 자처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일본은 日本版 「白人의 짐」(화이트맨스·버든) 意識을 발전시켜 나갔다. 西歐列強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략하여 자신의 植民地化하면서 그것을 「未開민족을 敎化하고 근대화시키는 白人의 부담 또는 의무」로 합리화했듯이, 일본도 그와 똑같은 논리로써 아시아隣邦을 대했던 것이다. 그 첫 희생이 바로 韓民族이었다.

일본인은 전통적으로 한국이 발전되어 나가는것을 시샘하는 심리를 지니고있다. 南北對話가 열려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을때 이를 경계하는눈빛을 명백히 드러낸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韓民族이 통일을 성취하여 일본의 경쟁국으로 성장하는것을 내심 두려워 한다. 그러므로 일본은 韓半島의 分斷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韓民族전체에 대한 分割통치의 妙를 계속 누리고자 하는것이다.

「侵略」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日、學界도교과서歪曲비판 讀賣신문報道

일본의 교과서 검정파문에 대해 일본내 학계 일부에서 「일본의 행위야말로 「침략」이외에 표현할말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 30일자를 통해 다음과같이 비판하고 있다.

▲綿貫讓治 上智大교수(사회학)=戰前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소련등이 東아시아에서 행한 행위는 「침략」이라는 말이외에 용어가 없다. 오랜 문화를 갖고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땅에 타국이 무력을 갖고 들어가는것은 침략이다.

歐美중심사관이 이제까지 歐美이외의 땅에 대한 백인사회의 팽창을 안이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진출도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이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

▲豬木正道 평화안전보장연구소이사장=일본의 행위를 침략이라고 하지않는다면 침략전쟁이라는 것은 없는 셈이다.

중국에 전면전쟁을 건것은 일본이외에 없으며 아편전쟁 등과는 시대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침략이라는 말에는 나쁜짓을 한다는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고 진출이라는 말에는 그것이 없다. 이경우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문부성이 하는 행동은 국제감각을 결하고있다.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는 우호국을 늘리는것이 가장중요한데 이번 일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좋지 않다.

▲家永三郎中央大교수(역사학)=진출이라는 것은 文部相의 속셈인것 같으나 중국에 대해서도 정말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영국·프랑스등이 중국에 식민지를 획득한것과 제1차대전후 국제연맹규약이나 不戰조약아래 국제법상 자위이외의 전쟁이 위법이 되었던 시대에 일본이 행한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

에도(江戶)시대에 복수가 정당화된 일이 있지만 문부상의 발언은 오늘날도 복수는 좋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桑原武夫京都大명예교수=현재는 국제시대로서 국내문제도 그내용에 따라서는 즉각 국제문제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정치가도 관료도 이같은 인식이 너무없다.

이번 교과서문제만해도 한국이나 중공으로부터 비판이 있을 것이라는것을 생각도못한것이 아닌가.

따라서 항의가오자 그대책에 허둥지둥하는 것이다.

메아리
리도의 개

金聖佑 〈編輯委員〉

파리를 여행하는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은 구경을 하는것이 리도·쇼다. 리도·쇼의 프로는 반년만큼씩 일부가 바뀌지만 몇해동안 계속되고 있는 장기프로의 하나에 「절대로 말을 듣지않는개」가 있다.

조련사가 조그만 개를 한마리 데리고 나온다. 「앉아!」하고 명령을 하지만 개는 부동자세를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조련사가 개의 엉덩이를 손으로 눌러억지로 앉히려고해도 개는 버티며 끝내앉지않는다.

이번에는 개더러 탁자위로 뛰어 올라가보라고 시킨다. 개는 여전히 들은체도 않는다. 조련사는 『개치고 이까짓것 못하는개 없다. 너는 이것도 하나 못뛰어 오르느냐』고 소리를 지른다. 개는 하품을하고 관중들은 폭소를 터뜨린다. 개는 결국 아무 개나 다 하는것을 하나도 하지않고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파리의 쇼 가운데 또하나 유명한것이 크레이지·호스·쇼다. 리도가 풍래식하다면 크레이지·호스는 모던하다. 크레이지·호스의 장기프로중 역시 인기있는 것의 하나로 「엉터리 요술장이」를 들 수있다.

얼간이같은 늙은 요술장이가 등장한다. 가슴에 주렁주렁한 훈장은 요술장이로서의 빛나는 경력을 말해준다. 요술장이는 몇가지 요술을 해보인답시고 하지만 한가지도 요술이 되는것이없다. 가령 생선을 한마리 봉투에 집어 넣고 기알을 낳는다. 무엇이 되어나오나 하고 궁금해들 하고 있는데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그대로의 생선이다. 요술장이는 자랑스러운듯이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리킨다. 어쩌다 요술을 하나 해냈다 싶으면 그자리서 그 트릭이 들켜버린다. 결국 아무 요술도 하지않는 이 요술장이는 어느 요술장이보다도 더 갈채를 받으며 유유히 퇴장한다.

절대로 시키는말을 듣지않는 개와 한가지도 요술할줄 모르는 요술장이가 어째서 그렇게 폭소를 자아내는 것일까.

정상적으로라면 두가지 다 관객의 야유감이 아닌가. 개는 사람이 시키는대로 따라해야하고 요술장이는 요술을 할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본성이다. 개가 개같지않을때, 요술장이가 요술장이 같지 않을때 사람들을 웃긴다.

베르그송은「웃음의 철학」에서 『假裝하고 있는 인간은 우습다. 사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자연에서도 假裝이란 우습다』고 말했다. 리도의 개는 고도의 훈련을 통해 개의 본성을 가장시켰고 크레이지·호스의 요술장이는 스스로 가짜 요술장이로 가장했다. 관객들은 이 人造의 가장이 우습다. 그리고 이 쇼들이 말해주는 假裝의 寓意를 즐거워 한다.

우리사회에는 假裝이 아직 너무나 많다. 부정식품을 만들거나 남의 이름을 도용, 사칭하는 가짜만 假裝인것이 아니다. 虛勢도 假裝이요 분수에 안맞는생활도 假裝이다. 假裝이므로 이런것이 다 우스워야한다. 그런데 웃는사람이 별로 없다. 모두 예사다. 이것이 큰일이다.

무대에 나와 아무 재주도 피우지 않는 개와 아무 요술도 하지않는 요술장이가 뭐 그렇게 우스우냐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개가 사람의말을 듣지않고 사람처럼 능청을떠는것은 개의 분수에 안맞는 일이다. 그래서 우습다. 요술도 할줄을 모르는 요술장이가 훈장만 주렁주렁 달고나와 되지도않는 요술을 한다고 거드름을 피우는것은 虛勢다. 그래서 우습다. 이 개와 요술장이가 고질화된 사회는 假裝이 고질화된 사회다.

의식구조를 개혁한다고들 한다. 사회의 假裝을 타파하려면 假裝을 보고도 전혀 우습지않는 의식구조의 개혁부터 선행되어야한다. 假裝이란 假裝은 다 우스운사회가 되기위하여 우리는 리도의 개를 웃자.

◇상어입속의 낚시바늘 除去
해양동물 수의사인 디크·뷰스 박사가 29일 美플로리다주에서 상어의 목에걸린 낚시바늘을 제거하기위해 팔에 PVC 통대를 감싸고 악어 입속으로 손을 넣고있다. 【오랜토 (美플로리다주) 29일 AP電송=聯合】

海外토픽

★蘇학자들 天體觀測결과
은하계「太陽系」많아

소련의 천체학자들은 은하계에는 우리의 태양계와 유사한 태양계가 약1백30개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타스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소련우크라이나공화국 하르코프大천체학자들이 여러해에 걸쳐 별들의 움직임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추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들 학자들이 관측가능영역내에 우리의 태양계와 유사한 태양계의 관측가능성을 밝혀내는 한편 외계문명과의 접촉, 최초의 星間우주비행계획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전했다. 【모스크바=聯】

★美의학자들 연구결과
담배、早老症유발

담배연기의 소입자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에게 암·판막성심장병·早老症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美의학자들의 연구결과에서 29일 밝혀졌다.

세계보건조사소장 R·T·래빈홀트박사등 몇몇 의사들은 이날 발간된 뉴잉글랜드의학誌에 기고한 연구결과에서 하루1갑의 담배를 피울경우 X레이촬영기앞에 서있는 정도와 동일한 양의 방사능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스턴=AP】

★中共"共產主義 모독"
性해방은 反動的

「섹스의 해방」이란 부르좌적이며 방종적일뿐아니라 공산주의를모독하는것이라고 중공 관영 工人日報가비난했다. 이같은 비난은 섹스의 해방이 부르좌적 개념이 아니라 「해방을 의미하는 역사적추세」라는 최근 중공 사회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발인데 섹스해방론에 대해 중공언론들이 일제히 공격을 퍼붓고있으나 아무도 이를 변호하고나서는 사람은 없다. 【北京=聯】

外信안테나

바웬사 계속拘禁
波副首相밝혀

폴란드군사정부는 자유노조지도자 바웬사를 「상황이 요구하는 한」 계속 억류할것이라고 미에치스와프·라코프스키부수상이 28일 밝혔다.

라코프스키 부수상은 가제타·로보트니크지와의 회견을통해 『바웬사는 지금 자유노조의 활동을 지난 1·2월과는 다르게 생각하고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문제는 바웬사가 자신의정경을 수시로 바꾸는 인물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바르샤바=AP】

美서 年末께 나올듯
遺傳子 재결합商品

【뉴욕29日=AP】 세계최신고급기술산업의 결정인 유전자재결합상품이 금년말이나 83년초에는 시장에 첫선을 보일것이며 이에따라 앞으로 인간생활에 혁명적인 영향을 발휘할것으로 보인다.

美월간무역전문지인 케미칼·비즈니스는 29일 발간된 최신호에서 금년말안에 최초의 DNA재결합상품이 시장에 나올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엘리·릴리회사는 인간의 몸에서 생성되는것과 똑같은 인슐린을 판매할 예정이며 제넨테크회사는 인간의 성장호르몬과 가축의 입이나 발굽에 잘 걸리는 鵝口瘡예방왁친을, 제넥스社는 우유를 치즈로 바꾸는 효소인 레닌합성제품을, 스미드클라인社는 돼지와 새끼의 설사를 예방하는 왁친을 각각 늦어도 83년까지 시판할 예정이다.

현재 최소한 4개회사가 抗癌劑로 각광을 받고있는 인터페론 재결합상품을 위해 임상실험에 착수하여 진전을 보임으로써 시장출하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뉴욕=AP】

核戰위기때都市民시골疎開
美하원民防衛계획

미하원은 29일 核戰발발위험이 고조될때 도시에 거주하는 수백만 미국인들을 시골지역으로 소개시키는것을 골자로한 대규모 민방위소개계획을 승인했다.

1천7백70억달러 규모의 83년도 군사무기법안을 놓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인 美하원은 이날 7개년민방위계획에 83회계연도엔 1억달러이상 삭감하자는 수정안은 2백40대 1백63으로 부결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수백만달러가 소요될 민방위소개계획을 추진할수 있도록 승인했다. 【워싱턴=UPI】

對臺灣무기판매 現水準동결
美、中共에 새提議

공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워싱턴=AP】

골드워터 美상원의원(共·애리조나)은 레이건행정부가 앞으로는 대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제의를 중공측에 전달했다고 밝힌것으로 뉴욕·타임즈가 29일 보도했다.

친대만派인 골드워터의원은 지난27일 對대만무기판매에 관한 상원외교위원회의 비공개청문회가 끝난후 가진 한 회견에서 이같은 제의가 허멜중공주재대사를 통해 중공측에 전달됐다고말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뉴욕=聯】

日의 眞意해명촉구
홍콩學生단체

【홍콩29日AP=聯】 홍콩의 일부 학생단체들은 28일 일본당국이 교과서검정을통해 1937년 일본의 중국침략을 「진출」이라고왜곡표현한데 대해강력한 항의를제기했다.

홍콩학생연맹과 다른 4개 학생단체는 이날 홍콩주재일본총영사관에 항의서한을전달, 일본정부가 「역사왜곡」의 진의를 해명해줄것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이 서한에서 「우리는 일본 문부성이 중국침략과 중국인대학살 등을 은폐하려는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레이건 訪印초청
간디 美國방문중

미국을 방문중인 인디라·간디인도수상은 29일 美·印간 10년동안의 냉각관계를 해소하기위해 레이건 美대통령의 印度방문을 초청했다.

한편 이날 미국과 인도는 프랑스의 농축우라늄 對인도 …

구독신청 배달사고 ☎ 533-2361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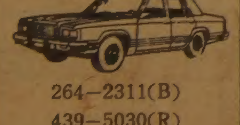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조 의 문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 · 수리 ·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6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R)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흥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12AM~4AM
일 : 12AM~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LEON'S 가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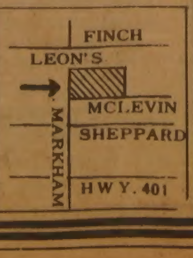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방황하는 自家運轉제도

고급公務員들 "엄두안나" 핸들잡기 꺼려

거리서 곤욕일쑤 調整기대

눈치보기…전국에 3백대뿐

문교부 23명대상에 2명·서울市 50명에 4명

고급공무원의 자가운전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기위해 지난 4월부터 공무원의 자가운전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많은 공무원들이 손수핸들을 잡는것을 꺼리고 있는것. 이같은 이유는 해당공무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자가운전이 의무화되는 83년까지는 관급운전사가 딸린 차를 타기를 원하고 있고 이미 차를 구입하거나 불하받은 사람들도 운전을 꺼리고 있기때문. 공무원들이 이처럼 자가운전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운전사가 딸린 관용차를 탄 오랜습관으로 나이먹은후 배운 초보운전이 체질화되어 있지않고 ▲주차시설교통표지판등이 미비한 교통여건에서 운전과 업무의 이중고가 겹치고 ▲사고를 낼 경우 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에 영향이 미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관료사회의 새로운 풍속으로 등장한 고급공무원 자가운전제도는 실시 4개월을 맞고도 아직 체질화 되지 못하고있다。

문교부의 경우 자가운전대상자가 모두 23명인데 단2명만이 자가운전을 하고있다.

하급직원들은 국장이 자가운전을 하지않기를 바라고있는데 그이유는 이따금씩급한 업무연락차 외출할때 국장이 『내차 타고가라』고 차를내주기도 했으나 국장이 직접 운전하면 업무용으로 쓸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청의 경우도 자가운전대상자가 50명이지만 현재 4명만이 직접차를 운전하고 있다.

면허를따고, 차도불하받은 사람들도『도저히 운전할 엄두가 나지않는다』며 시청소속승용차를 이용하고있는 실정이다.

자가운전을 하고있는 모국장은『택시들이 무서워서 기어다니는 형편이라고 털어놓고『운전이 서툴러 차도에서 멈칫거리면 욕을하고 지나가는 영업용운전수들도 있는데 이사관으로서 듣기에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부 국장급들은 전원이 운전면허를 따놓고있으나 실제로운전을 하는 사람은 5명뿐이다.

면허를 가지고도 운전을하지 않는 국장들은 내년으로 예정된 자가운전 전면실시계획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에 기대가 큰 눈치들이다.

모국장의 경우는 운전이아직도 미숙해서 일반통행로등 지리에 어두어 차를 몰고 외출하면 곤욕을 치르고 있고, 평소에 아는길만 골라서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수산부는 6명의해당자중 3명이 자가운전을하고있는데 그중 2명이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농수산부의 한관계자에 따르면 접촉사고를 내자 상대가 고급공무원임을 알고 피해자측에서 터무니없는 배상을 요구해오기도 했다는것.

또 이달말까지 유휴운전사를 해고토록 지시가 내려와있으나 운전사들의 취업알선문제가 해결되지않아 고민이라고 이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검찰의경우 대검중앙수사부 과장등 해당자전원이 모두면허를 취득했으나 지금까지 핸들을 직접잡는사람은 없고 서울고검의 해당자10명도 모두면허를 취득했으나그중 2명만이 최근들어 자가운전을 시작했다. 검사의 경우는 미숙한상태에서 운전을하다 사고를낼경우 특수한신분에따른 입장을고려,되도록이면 마지막까지 운전사가딸린 관용차에 의존해서 운전에 신경을 쓰지않으려는 눈치다.

한편 果川으로 옮겨간 보사부는 어느부처보다도 자가운전의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면허시험에 수차불합격한 국장은 시험에 합격하는것도 문제지만 면허를딴후에도 果川까지 장거리운전을 하는 것도 큰걱정이라고털어놓았다.

이에비해 치안본부는 총대상자 44명중 24명이 자가운전에 나서 운전실적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면허나 차량을 모두 구비한 사람들 중에서도 운전에 익숙치않은 사람들은 계원중 운전을 잘하는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고급공무원의 승용차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백여대가 자가운전화됐고 금년안에 추가로 3백대를 자가운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9백대를 자가운전화 함으로써 자가운전화목표 1천5백대를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제도의 실시와함께 자가운전을하는 공무원에게는 정부차량을 실비로 불하해주고 차량구입비 3백만원을 저리융자해주고 지하철 채권매입면제등 혜택을주고 월30만원의 연료비및 차량유지비도 지급하고있는데 이같은 정부의도에 비해 공무원들의 자가운전실적은 미흡한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잇따르고있다.

위반車輛 처벌강화

개정交通법규, 오늘부터 실시

오늘(31일)부터 교통법규위반이나 사고차량에 대한 제재가 대폭강화된다.

교통부는 30일 각종범칙차량이에대한 벌칙강화등을 내용으로 자동차운수업법 시행규칙, 처분규칙, 운수규칙등을 개정, 오늘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1개월에 8건이상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차량과 2명이상의 사망자나 10명이상의 중상자를 낸 사업용차량은 면허가 취소된다.

또 노선차량의 경우는 한달에 20명이상사망자를 낼경우는 해당운행노선을 취소하거나 보유대수의 5분의1을감차토록했다.

교통부는 또 처분규칙을개정, 노선위반운행, 사업구역위반, 부당요금징수등 법규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종전의 사업정지 30일의 처벌규정을 강화, 5만~5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물게하고 이를 이행치않을경우 5~90일간 사업정지처분키로했다.

한편 개인택시는 면허를받은지 5년이 경과해야만 양도할수있도록하고 양도후 10년이내에는 재면허를 받을수 없도록했다.

日新제강 철강재등 商銀, 소유권引渡訴

상업은행은 30일 李·張사건과 관련, 도산된 일신제강을 상대로 1백45억원에 달하는 철강재등의 소유권확인및 인도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상업은행법정대리인 宋永晏변호사는 소장에서『일신제강의 梧柳洞, 仁川, 釜山공장에 야적돼있는 철강재, 원자재 핫코일, 재압연용열연코일, 반제품의 소유권이 상업은행에 있음으로 이물건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宋변호사는『일신제강은 지난75년5월31일 이후 상업은행과 당좌거래및 지급보증등을 해오면서 지난5월10일 부도처리될때까지 상업은행에 모두 7백82억원의 채무를 졌고 그중 6백68억원을 아직 갚지않고있다』면서『일신제강은 당초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을 모두 대출담보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도처리된이후 이물건들의 인도를 거부하고있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구속된 前商銀行長 재판부에 보석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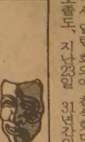
李哲熙·張玲子부부어음사기사건과관련,구속기소돼 징역7년이 구형된 전상업은행장 孔德鍾피고인이 변호인 李在祥변호사를 통해 30일 보석신청서를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에 제출했다.

代父의 죽음

戰爭고아 평생돌본 故白壽寅씨

2백여 子女 "우리는 또 孤兒됐군요"

장례식장에서 곡(哭)소리는 흔한예지만 전쟁고아의 대부(代父) 白壽寅원장(사진·경기安城邑桂洞山6신생보육원)의 영결식장은 색달랐다. 지난26일 상오11시, 白원장의 영전에서『아버지!』 왜 또 우리를 다시 고아로남겨두고 홀로 가십니까?』애끓는 조사가 이어지는 순간 식장은 온통 울음바다로 변했다. 조그만 보육원 앞마당을 꽉메운 2백여 원생들은 53세로 세상을 떠난 白원장의 관을붙잡고 놓으려하지 않았다.



白씨는 지난14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가 과로로쓰러져, 지난23일 31년간의 「代父」 생활을 마치고 별세, 그토록사랑했던 2백여 자녀들의 손에 의해 보육원뒷산에 묻혔다.

白씨는 安城에선「代父」로 통했다. 또 자녀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통하기도했다. 그의 아들은 자신과 연배가 거의 비슷한 40대도 있었고 철부지도 있다.

그가 전쟁고아의「代父」생활을 시작한것은 22살때인 1951년. 남들은 한창 청운의 꿈을 키울나이에 17명의 고아들을 품안으로 끌어들였다.

6·25동란의 소용돌이속에서 어려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먹여살리고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었다. 정부당국, 미군부대, 사회단체등 구호의 손길이 닿을만한 곳은 전부 찾았다.

그후 31년간 보육원은 4백66평의 기숙사와 1만6천평의 개간지를 소유한 보육원으로 자랐고 9백여명의 자녀가 그의품을거쳐갔다.

이들중에는 이제 보육원을 돕는 사회사업가로 자란 梁英吉씨(42)나 在美철학박사와 결혼한 丁英淑씨(43)처럼 성공한사람도 많다. 白씨는『아이들은 서로 피부가 맞닿아야 정이 생긴다』며「情」을 중요시한「代父」였다. 매일새벽 4시30분이면 보육원으로달려가 원생들의 손을잡아주며 따뜻한 情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모습에 보육원과 인연을맺어온 미군장병들까지도 감동, 그를「아버지」라 부르기도 했다. 이날 영결식장에는 사회로진출한 1백여명의 원생들이 자녀들을 이끌고 달려온사실로도「情의 끈」이 얼마나 돈독했는가를 알수있다.

『아버지는 저세상에가서도「代父」노릇을 하실것입니다. 그분은 고아들을 돌본는것을 하늘이 정해준 일로생각했으니까요』 국민포장과 각종 표창장이 놓인 상청을 지키는 원생들의 눈빛에서 남을위해 자신을 버린 한사회사업가의 참된 모습이 느껴진다. 【安城·移動讀者部】

都市마다 체육公園 조성

올핸 35개市 84年까지 2百24곳

내무부는 30일 전국 각도시에 체육공원을 조성키로하고 우선 올해안에 인구 10만이상인 35개시에 54개소를 비롯 84년까지 모두 2백24개소를 조성토록했다.

시민들의 휴식과 체력향상을 위해 만들어지는 체육공원은 인구50만이상인 대도시에는 한 구(區)에 1개소이상, 인구 10만이상의 중소도시에도 1개이상, 10만 미만은 자율적으로 조성하되 1개소당 시비 1천만원 가량을 들여 마련토록했다.

체육공원에는 철봉 평행봉 간이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등 24개 기본시설을 설치하며 장소는 시근교녹지나 하천부지, 기타 여유있는 공간을 활용토록했다.

日영사관 爆破위협

釜山, 50代전화…교과서歪曲사과 요구

【釜山】釜山주재 日本총영사관에 교과서 역사왜곡

또 29일하오에는 역사왜곡사실을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영사관 건물을 폭파시키겠다는 전화가 영사관에 걸려 왔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영사관 외사담당 총영사보좌관 이찬우씨(40)가 釜山동부경찰서에 신고한바에 따르면 이날하오 3시30분께 전화를 받았더니 한국민족수호투쟁동맹 행동대원이라는 50대 남자가 총영사를 바꾸라고 말해 『부재중이니 나에게 말하라』고 하자 8월1일까지 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영사관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말한후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방학大學生 求職難

【大邱】大邱시내의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중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학교측에 구직신청을 많이하고 있으나 취업률은 평균 30%에 불과하다.

29일 각대학에 따르면 慶北大의 경우 지난 6월20일부터 구직을 의뢰한 학생이 5백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일자리를 구한 학생은 33%인 1백65명, 嶺南大는 3백60명의 신청자중 46.6%인 1백68명, 啓明大는 1천13명중 22%인 2백24명에 불과하다.

또 대학생들의 취업분야도 폭이 좁아 50%이상이 취로사업장, 갈뵥, 교통정리원, 기업체 자료조사원, 교내 업무보조원등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翰】

美문화원 放火사건 10회公判때 結審도

【釜山】釜山미문화원방화및불온유인물살포사건9회공판이 30일상오10시 부산지법 1호법정에서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安文泰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변호인단의 변론준비미비로 개정30분만에 폐정됐다.

재판부는 당초 증인신문에 이어 검찰논고와 변호인변론, 피고인 최후진술등의 결심공판까지 진행하려했으나 金光日변호사등 2명의 변호사가 불참하는등 변호인측의 변론준비미비로 개정 30분만에 폐정, 오는 8월2일 상오10시에 열리는 10회공판때 구형을 하기로했다. 【翰】

기독 青年協 총무 國家모독혐의구속

서울東大門경찰서는 30일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상임총무 金喆基씨(26·延世大3년제적)를 국가모독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金씨는 지난23일 상오8시께 서울鍾路區鍾路5街 한국기독교회관에있는 EYC사무실에서「콘트롤데이타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반정부내용이 담긴 유인물 3백여장을 제작해 이중 20여장을 국내외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나머지는 EYC사무실을 자주 출입하는 예수교장로회한국연합회와 성공회대표들이 임의로 가져갈수있도록 사무실 책상위에 놓아두었다는 것이다.

지난77년 5월27일 延世大재학중 이른바「백지유인물사건」과 관련, 제적된 金씨는 또 지난 27일 상오 10시께「콘트롤데이타」여공들을 위한 기도회개최를 계획하고 국가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5백여장을 제작,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삿짐가장 密輸 30代에 구속영장

【釜山】부산세관은 30일서울東大門區 面牧洞234의2 崔明重씨(31)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밀수품인 일제 내셔널 카세트 1백21대, 무선전화기 50대, 밍크반코트 5개등 싯가 5천여만원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세관에 의하면 崔씨는 지난5월31일 부산항에 입항한고려해운소속 칸나호에 이삿짐을 가장해 밀수품을 선적, 부산세관 우암출장소창고에 입고시켰는데 지난28일까지 나타나지 않아 물품을조사한결과 밀수품임이 확인돼 범인을 검거하게됐다는것. 【翰】

생활침해事犯 일제團束 나서

3천여명 무더기拘束

치안본부는 30일 국민생활침해사범 일제단속에나서 전국에서 각종범법자 1만5천6백81명을검거, 이중 3천2백95명을 구속하고 6천1백90명을 불구속입건, 나머지는 즉심에 넘겼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검거된 위해사범은 조직상습폭력배가 전체의 81.9%인 1만2천8백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절도가 1천7백86명, 해외취업사기등 사기범이 1천49명이었다.

치안본부는 해외취업이나 이민을 원하는 근로자나 서민층을 괴롭히는 사기행위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력사범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펴고있는데 앞으로 8월25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소탕작전을 펴기로 했다.

民願상담 호응좋아 民統線지역 住民에

【鐵原】강원도鐵原郡과 교육청, 경찰서, 우체국, 농협, 농지개량조합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상담이 민통선북방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30일 철원군에 따르면 민통선북방지역 주민들을 위한 합동민원상담은 농기계수리, 가축방역, 무료진료와 아동들의 취학및 전·입학은 물론현지에서 원동기면허시험을 실시,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특히 농협과 농지개량조합은 농약사용법및 영농지도와 특용작물 재배정보등을 제공해주고있어 이곳 주민들에게 큰호응을 받고 있다는것. 【翰】

大法院판결

사업자帳簿 미비하더라도 추정稅金 부과못해

대법원특별부는 30일 부동산임대업자 全桂仙씨(50·서울龍山區厚岩洞105의73)가 龍山세무서장을 상대로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판결에서「상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때 장부일부가 미비되었더라도 무조건 추계조사로 소득을 정해 과다한 세금을 물려서는 안된다」고 판시, 원고 全씨에게 패소판결을내린 원심을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全씨는 수입액과 과세표준결정에 필요한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78년8월 龍山세무서가 추계결정, 종합소득세 91만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는데 서울고법에서는 비용을산출할 근거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지출내용을 산출할수있는 장부가 없더라도 수입을 산출할수있는 장부가있다면이를 근거로 수입액을 실제조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九老工團 근로자들 都産 규탄대회열어

서울九老區 한국수출산업공단내의 14개입주업체근로자 8천여명이 30일상오8시부터 직장별로 도산규탄대회를 가졌다.

숙박施設 부족 忠武관광에 지장

【忠武】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인 慶南 忠武市의 숙박시설이 이곳을 찾는 관광객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30일 忠武市에 따르면 이곳에는 호텔1개소에 객실50개, 여관 40개소에 7백29실, 여인숙 42개소에 4백38실등 관광객을 수용할수 있는 방은 모두 1천2백17개에 불과, 하루1만여명이 몰리는 관광철에는 절반밖에 수용할수 없다.

특히 이곳을 찾는 월1천여명의 외국관광객중 7월말부터 8월말사이의 관광객은 1개소뿐인 호텔이 내국인들에 의해 예약돼 방을 구할수 없어 제대로 관광을 못한채 馬山·釜山등지로 빠져나가고 있고 전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도 인근 固城, 巨濟로 가서 투숙해야하는 불편을 겪고있다. 【翰】

비타민·한약
미즈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MLS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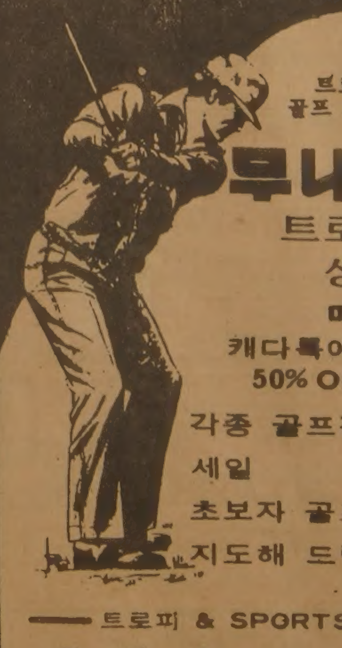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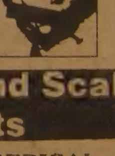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537-3104

아마·프로野球 死活건 줄다리기

「選手협약」 4개월째 難航

「大卒2년·高卒3년후」 원칙엔 합의

"協約체결時點서 적용을" 아마

"심한選手難…졸업때基準" 프로

프로야구출범이래 한정된 선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있는 프로와 아마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있다. 대한야구협회(아마추어)와 한국야구위원회(프로)는 선수협약이란 난제를 놓고 4개월째 생존을 건 싸움을 벌이고있다. 양측 모두 선수협약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인정하나 서로 주장하는 내용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수들은 黃金의 신천지 프로로 넘어가고 울타리가 부서진 아마측은 자폭직전의 좌절감에 빠져있다.

프로6개구단창단과 함께 한꺼번에 1백30여명의 선수를 잃은 아마협회는 지난4월 자구책을 마련, 프로위원회에 선수협약을 제의했었다. 아마측이 제안한 협약내용은 『첫째 실업팀등록선수중 대졸선수는 2년, 고졸선수는 3년간 프로에 갈수없다. 둘째 고졸예정선수에 대한 프로구단의 입단절차는 당해 시즌11월15일까지로 제한한다. 세째 대학선수중 퇴선수는 1년, 아마협회로부터 징계당한 선수는 2년 경과후에야 프로에 입단할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차례의 접촉끝에 양측은 일단 이 협약안에 동의했으나 마지막 결의과정에서 아마협회는 『실업팀선수의 대학및 고교졸업시점을 선수협약이 체결되는 시각으로 한다』는 단서를 내걸었다. 대졸실업선수는 2년, 고졸실업선수는 3년간 아마선수로 묶어 와해직전의 실업팀을 구해야겠다는 주장이었다.

프로측은 이 단서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심각한 선수난 해소를 위해 실업선수의 프로입단을 2, 3년씩이나 유보할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한고비를 넘기지 못해 협약은 결렬상태에 빠져있고, 끊임없는 아마선수의 프로입단으로 양측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아마측은 선수스카웃은 실업팀 감독과의 협의를 통해 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프로측에서 저버렸다고 비난한다. 9월 서울 세계선수권대회 출전대표선수들에 대한 프로입단 유보의 언약도 金一樓의 이탈로 깨어졌다. 아마측이 도저히 프로이적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실업팀선수들이 프로로 이적해갔다. 延世大에 입학했던 왼손투수 金正洙(진흥고졸)는 프로입단을 희망, 잠적했다. 『한배에 탄 공동운명체』라는 표현과는 딴판으로 양측은 거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있다. 【方錫皓기자】

鄭熙兆 새 상비군에

복싱選拔戰 국가대표 李鉉柱에 기권승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파견 아마복싱대표 최종선발대회 최종일경기가 30일 문화체육관서 열려 라이트급의 鄭熙兆(경북대)는 국가대표선수 李鉉柱(목포대)에 1회기권승을 거두고 3위를 차지, 상비군에 선발됐다. 첫날 高希龍(동원전문대)에게 패했던 李鉉柱는 이날도 활기없는 플레이를 전개하다가 1회중반에 鄭의 레프트를 가격당해 비틀, 李의 코너에서 타월을 던졌다.

페더급3·4위전서 朴龍雲(부산규섬고)은 鄭有星(서울체고)에 판정승, 상비군에 선발되었다. 이번대회 1진은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며 2·3위는 1진이 부상당할경우 대신 출전자격을 얻게된다.

여자代表 完敗 충격

美에 3-0…亞洲게임에 赤信號

3國친선排球

한국 여자대표팀은 29일밤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진 국제친선여자배구대회 2일째 경기에서 장신 美國과 맞서 1, 2세트 중반까지는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승부근성과 독점경정력빈곤으로 3-0으로 완패, 11월 아시안·게임을 눈앞에두고 심각한 적신호를 보였다.

왼쪽 주공 李恩敬이 오픈 공격으로 점수를 쌓다가 美國의 블로킹이 강화되면 연타와 속임수 공격으로 팀을 이끌고, 金英淑이 오른쪽서 가세하여 8-6, 11-8로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한국은 美계 2세인 데이비·그린이 서브 포인트를 얻고 점프력이 좋은 크로켓의 왼쪽 공격이 불을 뿜어 美國이 13-11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그러나 한국주니어대표는 李英玉 金容玉등의 블로킹과 李明姬 金玉順의 오픈강타가 불을뿜어 세계8위 브라질을 3-0으로 격파했다.

◇제2일 전적

한국주니어 3 (15 15 15 / 11 11 11) 0 브라질

미국 3 (15 15 17 / 5 11 15) 0 한국대표

◇李恩敬의 강타 한국의 주공 李恩敬⑬이 장신 美國의 블로킹을 뚫고 강타를 성공시키고있다. 그러나 한국은 3-0으로 완패, 큰쇼크를 일으켰다.

◇봉황대기 개막이틀을 앞둔 30일 信一高선수들이 학교운동장서 마무리 훈련을 하고있다. 【張蓮文기자】

鳳凰大旗 겨눈 強訓의 현장 — 서울

즐비한 名門들 "홈體面" 살리겠다

선두주자 信一·東商에 기대

전통의 培材 안정된 攻守가 強點

투수6명 冲岩도 호시탐탐

서울의 고교야구는 암흑기를 맞은것인가.

작년 봉황대회 결승전서 朴喜俊(善隣)이 쓰러진 이래 서울의 어느팀도 본무대인 서울운동장서 氣를 펴보지 못했다.

善隣, 中央, 培材, 冲岩, 城南, 培明등 한때 전국야구를 풍미했던 名門들이 그대로 살아 있건만 名門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못할만큼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금년 4개전국대회서 信一高가 대통령배, 東大門商이 화랑기서 4강에 한번씩 올랐을뿐 모두 2회전의 고비를 넘겨보지 못하고 꺾였다.

韓·日고교교환경기대표로 서울에서는 盧燦曄(배재)만이 유일하게 끼었을 정도.

서울팀의 전력이 정말이렇게 약해졌는가, 스타는없는가.

야구협회기록원 張哲鉉씨의 견해는 다르다. 張씨는 信一, 東大門商외에도 冲岩, 培材, 徽文, 明知등은 전국강호 대열에서 크게 뒤떨어지지않는 팀들이라고 말한다. 이팀들은 대통령배·청룡기등 전국대회 본선진출 티킷(6개)을 따내는데 기력을 탕진, 본대회서 페이스를 찾지못해 어이없이 패하곤 한다는것이다. 예선이 없는 鳳凰大旗서는 제실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배재의 盧燦曄, 신일의 金輪中 張光一, 吉洪圭, 東大門商의 金慶國 李文圭등은 고교정상급 타자로서 손색이 없으나 초반탈락으로 팬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팀의 전력은 전반적으로 투수력보다 타격이강하다.

올 전국대회 본선에 모두 진출한 서울의 선두주자 東大門商도 마찬가지. 黃南植 金慶國 李文圭 金相濂등은 홈런보다는 정확한 단타위주로 3할대를 상회하고 있다.

에이스 金泰珍이 몸쪽깊숙이파고 드는 낮은커브를 구사하며 마운드를 지키고 있다.

화랑기에서 9안타, 포볼 8개를 얻고도 2안타의 慶南商에 5-4로 역전패를 당했지만 이번 홈그라운드 경기서는 절대 요치 않을것이라고 李漢九감독은 자신만만하다.

李감독은 『필승득점이 6점이므로 상대방 타격을 5점이내로 묶는게 문제』라고.

信一高 또한 8, 10회 대회서는 8강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서울의 선두주자로서 체면을 세우겠다며 결의가 대단하다.

재주꾼 鄭美孝가 찬스포착에 예민하다. 金恒基 張光一 金輪中등 클린업 트리오의 일발장타가 그뒤를 잇고있다.

信一中출신인 1년생 金廣謙의 커브 컨트롤이 점차 좋아지고 미완의 兵器 朴廷洙의 강속구로 화랑기대회서부터 가능성을보여 기대가 크다. 『개막첫날의 對北一高戰이 큰 장벽이지만 北一이 화랑기결승으로 지쳐있어 제실력만 발휘하면 무난히 승리할수 있을것』이라고 朴容熙감독은 장담.

전통의 명문 培材는 대통령배에선 서울우승팀. 대통령배본선서는 우승팀 釜山高에 10회연장전끝에 역전패당했지만 攻·守가 안정된 팀이다.

유격수 盧燦曄이 이끄는 내야수비는 물샐틈이 없고 金正文 柳尙憲 申容涉등중심타선의 폭발이 무섭다.

좌완투수 金正文은 1급투수이나 체력이 약해 승부에 끈질기지 못한게 흠이다.

77년 봉황기우승팀인 冲岩高도 해마다 투수부족으로 우승의 문턱서 물러났으나 올해는 6명의 가장 두터운 투수진을 자랑하고 있다.

中央·徽文·서울·明知 「무서운 아이들」

1m85의 거구 金普巖(1년)이 내리꽂는강속구는 위력적이다. 지난해 팀의 견인차역할을 맡았던 좌완 金起範도 체력과 컨트롤이 많이 좋아졌다.

청룡기서 群山商에 다이긴게임을 역전패당했었다.

서울勢의 복병 明知高는 도깨비란 별명을 가졌다.

기복이 심한게 흠이지만 朴泰鍾, 柳興坤 韓相眞의 방망이는 서울대회서 4할대를 기록할만큼 폭발적.

대봉기서 강호 馬山商을 4-2로 꺾더니 慶北高와는 난타전끝에 13-10으로 분패, 관심을 끌어모았다.

서울시춘계연맹 준우승팀인 徽文高는 강력한 팀웍이 장점. 더우기 金容載 李明燮 李基錫 玄政勳등이 날카로운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으나 마운드 불안이 약점. 李明燮이 상대방 타봉을 어느만큼 막아줄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밖에 50년 야구전통의 中央高도 청소년대표출신 盧承欽를 중심으로 재기를 다지고 금년1월 金昊中감독을 맞아 팀을 정비한 서울高도 8회대회 우승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끝〉 【金貞根기자】

신종식 大會新 60kg級서 3개

전국학생 力道

서울운동장 역도장에서 30일 속개된 제9회체육부장관기쟁탈 전국학생역도대회겸 제4회 한일고교교환경기파견선수선발대회 이틀째 고등부경기에서 경북체고의 신종식이 60kg급 인상, 용상, 합계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신종식은 먼저 인상에서 종전 1백kg을 깨고 102.5kg의 기록을 세웠고, 용상에서도 1차시기서 125kg, 2차시기서 127.5kg을들어 자신의기록을 잇달아 경신했다. 합계서도 230kg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제2일기록

◆고등부대회신〈서울운동장〉

▲60kg급인상=신종식(경북체고) 102.5kg ▲용상=신종식 127.5kg ▲합계=신종식 230kg

신정순 大會新4개 女高 개인종합1위

전국中高弓道

【大田】제8회 체육부장관기쟁탈 전국시도대항 남녀중고궁도대회가 29일 大田女中운동장에서 개막, 여고부의 신정순(광주여고)은 혼자 대회신기록 4개를 세우고 1천2백96점으로 여고부 개인종합 1위를 차지했다.

신정순은 이날 70m싱글에서 3백13점을 쏘아 대회신기록(종전 3백9점)을 세운데 이어 60m에서 3백31점(종전 3백29점) 30m에서 3백50점(종전 3백43점)을 기록, 개인종합에서도 1천2백96점으로 대회신기록(종전 1천2백80점)을 수립하고 4관왕이 됐다.

남고부 개인종합에서는 김태형(세종고)이 1천2백60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단체전경기에서 全南體高는 3천7백31점으로 대회신기록(종전 3천6백79점)을 세우고 남고부 우승을, 서울女高는 3천6백71점으로 여고부패권을 잡았다. 【聯合】

프로야구

三星 단독先頭

롯데에 2對1…8승2패

三星·라이온즈가 프로야구 후기시즌에서 8승2패를 마크, 단독선두에 나섰다. 三星은 29일밤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롯데·자이언츠와의 3차전에서 3회말 2死후 張泰洙의 포볼과 도루로 승기를 포착, 許奎沃, 吳大錫의 연타로 결승점을 올려 2-1로 승리했다.

대세가 기운 9회초2死후 롯데 5번金容哲은 우월 솔로·홈런으로 三星선발 權永浩를 통타, 파란을 일으켰다. 휘청거리는 權永浩로부터 6번朴庸成은 포볼을, 7번車東烈은 좌중간 안타를 빼앗아 2死2·3루로 찬스를 이었다.

權永浩는 8번 金在相에게 투볼을 던진후 물러났다. 구원에 나선 노장 黃圭奉은 金在相 대신 들어선 대타 金一煥을 포볼로 걸려 만루를 만든후 9번權斗祚를 三振으로 잡아 롯데추격의 불길을 껐다.

◇29일전적

◆서울

롯데	000	000	001	1
삼성	002	000	00×	2

▲홈런=金容哲(9회·롯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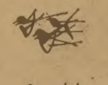
◇후기 중간순위 (29일현재)

팀	승	패	승률
①三星	8	2	·800
②MBC	7	2	·778
③OB	6	2	·750
④해태	4	6	·400
⑤롯데	2	7	·222
⑥삼미	1	9	·100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77>

朴婉緒 作　金光培 畫

양달 ⑫



이렇게 빈정대는 기욱의 표정은 야비하다못해 황폐해 보였다. 수지는 이 새로운 발견을 믿고싶지않아 눈을 감았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빠진 그 불패한 함정에서 눈물이 유리하게 작용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작자 생각을 하고있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깨끗이 잊었다고해도 기분좋을 것도 없군. 제기랄』

그가 씹어 뱉듯이 한무로 말했다.

『정말 저속하게 구는군요?』

수지는 눈물을 바바 닦으면서 분연히 말했다.

『저속해? 맞았어. 그래서 수지처럼 고색한 여지에게 반했나보지』

기욱이 자조하듯이 말하면서 입을 다물었다. 재미도 없는 장난에 달린 아이처럼 권태로운 표정이 되었다.

『나가요. 우린』

마주 앉아있는게 싫히 답답해서 수지가 먼저 일어섰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그날이 온종일 배회하던 번화가를 벗어나 덕수궁 돌담을 낀 산책로로 접어들었다. 밤의 그 길은 가끔 한덤어리가된 아베크를 만나는것 외엔 도시 한가운데라는 걸 믿을수 없을만큼 호젓했다.

『미국 있을때 딱 한번 연애를 할뻔한 적이 있었어. 꽤 괜찮은 여자 였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날 딱지 놓은줄 알아? 한국 남자라면 넌더리가 난다나. 마치 제가 한국남자란 남자는 다 겪어본 것처럼 진저리를 치면서 말야. 째째하고, 치사하고, 비굴하고 허약한 쪽군, 처녀막 복원수술같은 의술인지 뭔질인지를 세계 최초로 연구반달케한 골빈 괴물, 동동이 대강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그 여자의 한국남자에 대한 품평이었어. 그 년이 지금 좀 양코배기나 하다못해 검둥이라도 하나 꿰차 한국남자에 대한 복수를 완성했으면좋으련만. 재수 나쁘게 왜지금 그 여자 생각이 났더라? 설마 그 여자악담에 일리가 있어선 아니겠지. 제기랄…』

그가 어깨를 흔들며 공허하게 웃었다.

그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끌어당겨 어깨동무를 했다. 그녀는 한손으로 어깨동무하고 느러진 그의 손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론 그의 허리를 가볍게 감았다. 인재하고 수 없이 해보던 짓거리여서 거기까지는 저절로 되었지만 그 다음에 올것은 저절로 와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올 것은 한 없이 편안하고 사랑에 넘치는 충족감이었다. 수지는 의식적으로 기욱을 인재로 착각하려고 노력까지 하면서 그 때같은 사랑이 넘쳐 흐르길 기다렸다. 그러나 그건 기다려도 오지않고, 다만 그동안 그것에 얼마나 굶주렸던가를 거지처럼 일벗은 마음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집을 지어보지 않을래?』

기욱이 별안간 부자연스럽게 들뜬 소리로 말했다.

『우리들의 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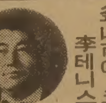
『그래 우리들의 집. 고향사람들에게 회관도 지어주는 능력있는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집 한채 안지어주실라구? 그 영감은 마을 회관처럼 또 제멋대로 지어놓고 우리더러는 입주만 하라고 할테니 우리가 먼저 우리집을 지읍시다. 그 영감 선수를 칩시다』

『기욱씨 그렇게 버릇없이 굴어도 괜찮아요?』

수지는 기욱이 지금 결코 재미나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재미난듯이 맞장구를 쳤다.

釜山市에 코트기증

李테니스협회장



李鍾蔭

대한테니스협회 李鍾蔭회장은 釜山 東萊區 社稷洞에 클레이코트 8면(약1억원)을 지어 釜山市에 기증했다. 테니스선수들의 훈련과 테니스대중화를위해 기증한 이코트는 釜山종합운동장을 건설하고있는 三益住宅그룹이 지은것으로 31일 준공식을갖는다.

한국代表 1승1패

도요다팀에 逆轉敗

訪比친선농구

필리핀에 원정중인 한국남자농구대표팀은 29일밤 열린 필리핀프로팀 도요다와의 대전서 116-122로 역전패했다. 한국은 1승2패를 기록했다.

◇제3차전

도요다 122 (63 59 / 46 70) 116 한국대표

와따나베 1차防衛

바야스에 TKO勝

WBA J밴텀級

【大阪支社】프로복싱 WBA 주니어 밴텀급챔피언 와따나베·지로(渡邊二郞)는 29일밤 오사카서 벌어진 타이틀 1차방어전서 前챔피언 구스타보·바야스(아르헨티나)에 9회 TKO승을 거두었다.

蹴球GK 새규정 혼란 빚어낼우려

스위스聯盟주장

【취리히29일UPI=聯合】축구경기를빨리 진행하기위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마련한 골키퍼에 관한 새규정은 『혼란을 빚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스위스 축구연맹이 29일 주장했다.

FIFA는 골키퍼가 낭비하는 시간을줄이기위해 골키퍼가 공을잡은채 4걸음이상걸어간후 공을놓고 다른선수에게 패스해주기위해 다시공을만지는경우 간접프리킥을 주도록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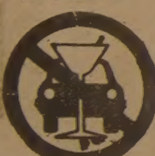
종전의 규정은 골키퍼가공을 쥐거나 튀기거나 또는공중에 던졌다가 다시잡으면서 4걸음이상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프리킥을 주도록 했었다.

FIFA는 새규정을 모든 회원국과 심판들에게 통보했다.

스포츠短信

鄭체육회장, 洋弓선수단午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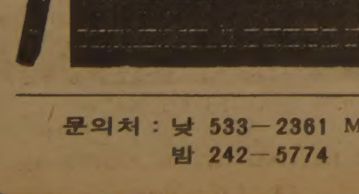
◆鄭周永 대한체육회장은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양궁선수권 대회서 우승한 한국대표선수단을 30일초청 롯데호텔서 오찬을베풀었다.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익히고있는백 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도 매 상

과일·채소·화초

●저렴한 가격　●신용본위

($150이상 배달합니다.)

대표 : 곽 덕 렬
463 Carlaw Ave.　☎ : 465—8167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日外務省,"교과서歪曲"是認

紛爭막게 "是正" 요청 검토 日本
日 원만한 收拾 注視키로 한국

정부는 日本외무성이 26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역사교과서 개정작업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이문제가 韓日양국간의 外交紛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외교적紛爭을 피하는 차원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歪曲史實의是正」을 위해 원만한해결을 모색키로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李相振 駐日공사는 28일하오 令에따라 日本외무성으로 기우찌·아끼다네(木內昭胤) 亞洲局長을방문, 역사교과서歪曲과 일부 각료들의 문제발언에대한眞意를 打診한결과 기우찌국장은 『문제가있다』고 시인하고 『더이상 이문제가 확대되지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외무성의 공식입장을 표명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해 왔다.

이에앞서 26일에도 日本외무성은 『역사 교과서의 표현상에 문제점이없지않다』고 이문제에 대해보며 한국내의沸騰하는 여론을감안,是正을검토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文部省에 알리겠다』는 입장을駐日대사관에 통보했었다.

정부의 한외교소식통은 29일 『日本이 이문제의 원만한 해결의사를 밝혀옴에따라 외교채널을통한 엄중 항의、교과서내용의 즉각 是正촉구등의 강경한 외교紛爭的대응에 앞서 日本정부자체내에서 이문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한 노력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日本외무성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양국간의 외교적 분쟁을 피하는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日本측의 전진적자세로 환영하고 政界·學界·언론계등 외교외적인 문제접근방법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고있다』고 말하고 『이를테면 ▲韓日議員聯盟과 日韓議員연맹을 통한 시정촉구 ▲韓日양국 史學者및 중견언론인간의 의견교환 ▲문교부등 관계당국자간의 접촉등다각적인 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檢定입장 不變 日政府 밝혀

【東京28日AP=聯合】일본정부는 28일 일본군의 중국침략을 왜곡표현해 말썽을빚고있는 교과서검정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對중공자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중공당국에 전달했다.

관리들은 駐日중공대사관을 통해 중공당국에 전달된 이같은 일본정부의 견해가 지난72년9월 日-중공외교관계정상화 당시 발표된 양국공동성명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힌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외무성대변인은 이날 일본군이 2차대전중 중국인들에게 입힌 피해에대해 일본정부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중공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으나 교과서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다짐하지는 않았다.

이 대변인은 이같은내용의 메시지가 주일 중공대사관을 통해 중공당국에 전달되었다면서 이메시지에서 일본이 교과서검정에 대한 중공측의 견해를경청하게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러한 교과서검정을 중지할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日文部省 책임轉嫁
출판업자"強要했다"반발

【東京28日=宋孝彬특파원】일본문부성은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말썽이난 용어표현은 출판사의 재량에 맡기고있음을 강조, 최근 문제가되고있는 교과서 검정의 책임을 출판사측에 돌리려는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이에대해 고교용 日本史및 세계사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들은 문부성이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고교용 일본사를집필했던 나가하라·게이지(永原慶二) 一橋大학교수는 28일 일본도오쿄(東京)신문을 통해 『문부성이 침략을 진공등으로 고친것은 강제성이없는 수정의견이었다고 밝히고있으나 이는 당치도않은 거짓말』이라고 강조하고 자신은 지난78년 중학교과서를 집필할당시「중국에의침략」이라고붙인제목을 진공으로 고치라는지시를 문부성으로부터 받은일이있다고 말했다.

나가하라교수는 특히 3·1독립운동과 같은 일본식민지에 대한 한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단순한 폭동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한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모독하는것으로 『이것은 설명해서 한국에 납득시킬수 있는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檢定경위 어제 中共…오늘 한국에 說明

【東京29日=宋孝彬특파원】일본文部省은 물의를 빚고있는 검정교과서문제에대해 29일하오 駐日중공대사관의 王曉雲공사에게 일본의 교과서검정제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文部省은 30일하오4시 주일 한국대사관의 李相振공사에게 교과서검정문제에 대해 같은 설명을할 예정이다.

스즈끼(鈴木)고등·중등교육국장은 일본의 교과서검정제도가 文部省의 단독행위로 결정되는것이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지고있으며 문제가 제기된 「대륙침략」이 「진출」로 바꿔진것도 강제성을 띠지않은 개선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실례로서 스즈끼국장은 『침략이라는 용어를사용한 교과서는 日本史3권, 世界史 6권이었으며 文部省의 요구로 삭제 또는 변경한것은 일본사 1권과 세계사 2권이었다』고 해명했다.

"한국人 殺傷숫자 削除"
요미우리暴露 關東大地震·3·1운동등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9일자에서 문부성이 「3·1운동」을 「폭동」으로 왜곡,기술하고 「대륙 침략」을 「진출」로 바꾸었을뿐 아니라 과거 침략속에서 나왔던 숫자는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해왔다고 폭로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그예로서 南京학살에서 20만명이 희생됐고 3·1독립운동으로 7천여명이상이 희생됐으며 강제징용으로 60만명의 한국인이 끌려갔고 關東대지진으로 6백명이상의 한국인이 학살됐다는 교과서의 원본을 검열과정에서 숫자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모두 삭제

侵略觀 明治때부터 역사날조 後世誤導
獨立有功者協성명

한국獨立有功者협회(회장 趙擎韓)는 29일 일본교과서의 對韓侵略史歪曲에대해 성명을내고 『일본의 對韓侵略觀은 1868년의 소위明治維新이래 뿌리깊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있다』고 전제, 『그들이 역사를 歪曲 날조한다는것은 人類史에 대한 기만이요 反逆인것이며 침략의 再기도를그들의 후손들에게 다시금 유도시키려는 어리석은 妄想이외의 아무것도 아닌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또 『일본국토청장관이 소위 韓日合倂 즉 침략을 合法정당화하려는 잠꼬대는 日帝와 身命을 바쳐 血鬪한 우리 독립투사들이 살아있는한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日殘虐相·침략史 他國선 正確서술"

日紙, 교과서歪曲에

【東京29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새 검정교과서에서 일본군국주의의 한국및중국대륙침략을 진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각국의교과서들은 일본의 침략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29일자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의 주요신문들은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파동의 당사자인 한국, 중공, 대만은 말할것도 없고 美、英、西獨등 세계주요국가의 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과 잔학행위가 사실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미국=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滿洲를 유린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사실이라고 지적.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가 대두해 다른나라를 침략했다고 설명.

▲영국=일본군국주의의 침략, 일본군의 잔학성을 역사의 문제점으로 지적.

▲서독=일본에 의한 한반도침략, 한반도 점령병합, 일본의 중국점령이라는 표현을 사용. 또한 나치독일의 유태인학살및 폴란드침략등 서독의치부도사실대로기술.

▲소련=만주사변, 中日전쟁, 태평양전쟁등을 일본의 계속적인 아시아 침략전쟁으로 묘사.

▲필리핀=중국에서의 일본의 행동을 정복, 침략, 진출계획등의 용어로 서술. 필리핀에 대한 행동은 점령이라고 표명.

▲싱가포르=이름마저 昭南島라고 바뀌었던 42~45년의 일본점령기간을 『고난의 昭南시대』 「암흑의 3년반」이라고 서술. 일본군의 주민학살행위를 생생히 묘사.

▲호주=제2차대전중의 일본의 행동을 모두 침략, 침입이라고 표현.

▲인도네시아=일본군의 천연자원및 생산품 수탈과 강제징용사실들을 조목조목 설명.

▲中共=『일본은 「蘆溝橋사건」을 일으켜 중국동북부전역을 점령했다』 『일본은 중국침략 전쟁을 시작했다』고 기술.

學界서도「교과서是正」요구
韓·日史집중研究등 對策마련 합의

일본교과서의 한국관계 왜곡에대한 국내학계와 사회단체의 규탄및 시정요구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국내 사학연구단체를 총망라한 한국사학연구협의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소집, 일본교과서의 왜곡을 학문적인입장에서 검토하고 국내학계로서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본교과서 왜곡파동은 학계전체의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7개 역사관계학회 모임인 한국사연구협의회는 29일 하오2시 서울鍾路區平洞 한국연구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일본교과서의 한국관계 왜곡사실에 대한 대처방안을 협의했다.

이날회의에 참석한 학자들은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는 학문적·학술적으로 올바르게 서술하는것이 학문의 본연적인 자세』라고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의 한국사연구방향은 한일관계사부분에 중점을 두며 문제여하에 따라서는 한부분을 집중연구해가고 ▲학문적자료를 보완하여 교과서왜곡문제를 연구, 연구논문을통해 日本사학자들과의 교류증진을 꾀하며 ▲일본교과서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새회장에 선출된 李鉉淙국사편찬위원장은 『일본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이 바뀌어 서술된 것은 장차 한일간의 우호에 크게 염려되는 일』이라고 밝히고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역사를 연구하는학자로서는 할 수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는 李鉉淙(국사편찬위원장) 盧明植(역사학회장) 韓榮國(震檀학회장) 金元龍(한국고고학연구회장) 林英正(한국사연구협의회前간사) 鄭永鎬(한국미술사학회회장) 河炫綱(한국사연구회회장) 崔昌熙(국사편찬위원회) 尹世哲(역사교육연구회) 申芝鉉씨(한국사학회)등 학자 10명이 참석했다.

◇學者들 對策협의 한국사 연구협의회 관계학자 10명은 29일 모임을 갖고 일본교과서의 한국관계 왜곡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歪曲문제 公聽會
오늘 對日역사왜곡糾彈 국민회의

光復會、독립동지회、순국선열유족회、3·1여성동지회、대한교련、역사교육연구회등의 후원을 받은 「對日역사왜곡규탄및 시정요구 국민회의」(대표 崔昌奎)는 30일 하오1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日本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관한 공청회를 갖는다.

전문가들의 조사발표와 토의 형식으로 진행될 이모임은 「日本역사교과서의 한국관계역사왜곡서술實態」 「日本의 對韓觀의 근본에 문제있다」 「日本교과서의 韓國史像」등 3개의 주제를 다루게된다.

이중 제1주제는 愼鏞廈교수(서울大)가 발표하고 李元淳교수(서울大) 宋吉燮교수(강리교신학대) 李建鎬의원(民正黨)등이 토의에 나서며 제2주제는 金學俊교수(서울大)의 발표에이어 崔相龍교수(高大) 尹相哲(京鄕新聞주필) 南時旭(東亞日報 편집부국장) 李閔基의원(民韓黨)이 토의에 나선다.

끝으로 제3주제는 在日史學者인 李進熙씨가 주제를발표하고 토의자로는 姜在彦씨(在日史學者) 崔鍾律(中央日報논설주간) 李圭泰(朝鮮日報논설위원) 趙一濟의원(國民黨)이 참가하며 사회는 鄭元植 서울師大학장이 맡는다.

새해豫算 赤字편성
정부·民正협의 經常費는 올해수준凍結

民正黨은 29일 黨소속 豫算決委 전체회의를 열고 83년 豫算案편성지침을 협의했다.

民正黨은 이날 협의를 통해 예상되는 재정赤字를 고려, 赤字예산을 편성하고 일반행정비와 여비등 經常費는 금년수준(2천6백억원)으로 凍結키로 했다.

鄭在哲의원은 이날 『정부예산내용을 분석, 새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경비를 최대한억제키로했다』고 말하고 『저소득층의 稅부담이 過重되지않도록 稅制개선을통해 公平과 均衡의 원칙이 지켜지는 예산편성을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民正黨은 8人小委를구성, 이날 마련한 예산안의지침중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오는8월9일부터 5개분과위를 구성, 정부가 제출할 새해예산안의 타당성을 중점검토할 예정이다.

民正黨豫決委가 결정한 예산심의지침과 8인小委는 다음과 같다.

◆편성指針=▲낭비및 비생산사업의축소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예산은 0점기준에서 사업의 필요성여부를검토하여 추진 ▲88올림픽의 경제성提高의 추진 ▲농업용水개발사업의 계속 ▲인구의 도시집중방지와 농촌인력확보 ▲건설사업은 마무리위주로 추진 ▲宅地개발과 중소규모 주택건설의확충 ▲유전자공학의 조직 기술개발등 과학기술개발주력

◇8인小委=鄭在哲(위원장) 崔洛喆 鄭宗澤 南載熙 沈明輔 李大淳 鄭石謨 高貴男

社會漫評

드디어 責任전가싸움이…

地平線

모자란 것보다 남는것이 언제나 좋다. 강물도 그렇다. 도도히 흘러야 시원스럽고 마음이 탁 트이게 된다. 한강을 건너 다니다 보면 철따라 그 얼굴이 달라진다. 갈수기엔 하상을 드러낸 모습이 각박하다. 홍수때면 탁류가 사납게 휘돈다. 이 흙탕물이 가라앉은뒤, 강풍경은 눈부신 햇살을 받아 푸르고 정겹다. 한강의 큰 물줄기와 합류하는 서울주변의 개천을 살펴 본다. 「시냇물이 졸졸…」하는 동요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시커먼 구정물이다.

▼냇물의 원류엔 샘구멍에서 나온 生水가 흐른다. 죽은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이 솟는다. 藥水도 합쳐질것이 분명하다. 이맑은 물이 공해의 배설로 썩어서 흘러내린다. 산이 둘러 싼 서울엔 약수터가 1백50여군데나 있다. 이른 새벽부터 이곳에 몰려드는 건강대열은 우리생활의 한풍속도가 된지 오래다. 약수는 예부터 만병통치의 효능을 가진것으로 믿어 왔다. 조선조 세종은 안질을 고치려 약수터로 행차한 일도 있다.

▼약수는 보건을 위해 추천할만 하다는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소화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겐 탄산천, 심장병 요로결석엔 토류천이 좋다 한다. 유산염천과 식염천은 위장병에 권할만 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藥理효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엔 이름난 약수고장이 많다. 오색과 초정이 남한에서 유명하고 삼방·석왕사·강서가 북한에서 이름났다. 우리 물맛이 그만큼 좋다는 증거라고 하겠다.

▼요즘 生水에대한 관심이 높다. 설탕공해와 수질오염에서 벗어나 자연수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동강물을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는 익살스럽지만 이젠 정색을 하고 물장사를 하게 되었다. 국내시장만 아니고 미국, 중동, 호주로 수출도 한다. 한해 1천만달러가 넘는 시장이다. 세계적인 물장사론 프랑스가 꼽힌다. 미네랄 워터시장의 70%를 차지하고있다.

▼더위를 참아가는것은 고되다. 샘터에서 길손에게 한바가지의 물을 퍼주는 여름의 인정은 너무 아름답다. 몸의 3분의2는 水分. 그중 1kg만 땀으로 빠지면 목마름과 피로를 느낀다. 5kg이 없어지면 탈수현상이 일어난다. 물의 귀중함을 거듭 새겨 본다. 약수와 샘터를 적극 보호·보존해 가야 하겠다. 웃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한강을 살리는 첫걸음도 여기서 찾아 보면 어떨까. 「물을 살리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241-3952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성희

종합보험

김홍람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日의 두얼굴」에 美 言論도 발끈

日本의 表情

당장 修正不可는 旣定사실
무성의한 변명·책임전가로 事件 확대
고작 "다음에는 고려하겠다"

【東京29日=宋孝彬특파원】한국과 중공으로부터의 강력한 항의로 외교문제화 되고있는 일본의 검정교과서 문제는 일본文部省의 무성의한 변명과 책임전가로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다.

교과서문제에 대해 일체 국내보도를 삼가했던 중공은 28일 人民日報등 각신문을 통해 일제히 省向前 중공외무성 제1국장이 일본에 항의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일본비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중공이 왜곡된 고교검정교과서 문제는 日·中共공동성명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 정식 외교문제로 들고나온데 이어 한국은 27일 駐日한국대사관의 金錫友1등서기관이, 28일에는 李相振공사가 외무성을 방문, 마쓰노 국토청장관의 「내정간섭」 발언의 진상을 확인, 항의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각국이 일제히 들고나온 교과서문제에대해 일본정부는 28일 각의를 열고 이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미야자와관방장관, 사꾸라우찌외상, 오가와文部相등이 긴급대책회의를 가진끝에 외교문제와 검정교과서문제를 분리, 해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공측에대해서는 72년 日·中共공동성명에서 밝힌대로 『일본이 중국전쟁을 통해 입힌 막대한 손해에대해 책임과 반성을한다』는 정신을 재확인, 이해를 촉구했다.

또한 내정간섭발언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해온 한국측에 대해서는 마쓰노 국토청장관의 발언이 일본정부의 방침과는 무관하며 韓日외교의 기본정신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재확인함으로써 교과서문제로 일기시작한 양국관계의 악화를 막을 방침으로있다.

이에따라 北京주재 일본대사관의 와따나베公使는 중공외무성이 공식항의한지 이틀만인 28일 하오4시 중공외무성을방문, ①72년의 日·中共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②이같은 인식을 학교교육에 반영할 것이며 중공정부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③교과서검정문제에 대해서는 문부성이 駐日중공대사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공측은 왜곡된 교과서문제에 대한 일본 문부성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난뒤 검토하겠다고 밝혀 일본측의 충분한 해명과 교과서 수정등 결과를 보면서 중공측의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일본 文部省은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과정이 필자와 출판사와의 자주적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검정이 수정의견과 개선의견으로 나뉘어있고 수정의견은 강제성을 띠고있으나 개선의견은 자주적으로 개정되고 있다고 해명하고있다.

특히 한국과 중공이 지적하고있는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수정의견이아닌 개선의견으로 제시된 것이었다고 말해 그책임을 필자와 출판사쪽에 밀고있다.

문부성이 그실례로서 「대륙침략」이 「진출」로 고쳐졌다고 하지만 「침략」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교과서는 금년에 실시한 검정교과서9개중 6개(세계사4·일본사2)가 침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교용 일본교과서를 집필한 나가하라(永原慶二) 一橋大교수는 78년자신이 집필한 중학교교과서 검정에서 「중국에의 침략」이라는 제목을 강제로 고치는 수정의견을 붙여왔다고 폭로했다.

나가하라교수는 또한 3·1독립운동에 관해서도 일본군대와 경찰탄압으로 조선인 7천명이상이 피살되고 많은 교회가 불탔다는 원문을 「군대·경찰에의해 폭동을 심하게 탄압했다」고 고쳤다고 밝혔다.

일본문부성은 검정과정에서 굳이 「일본의 군대와 경찰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군대와 경찰에 의해 폭동이 진압됐다는 점과 폭동이 일어났기때문에 진압이 불가피했으며 사살된 인원수는 정확한 사실기록이 없기때문에 명시하지 않는게 좋다는 의견을 붙였다는 것.

이밖에도 關東대지진사건에 관해서도 학살된 인원수의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이유로 「관동대지진으로 조선인 약6백명, 중국인 2백여명이 학살됐다」는 원고를 「관동대지진으로 조선인 다수가 학살됐다」고 수정했다.

또한 해방에 관한 대목에도 문부성은 「해방」이라는 말을 일체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선은 일본의 35년간에 걸친 지배로부터 해방됐고 대만은 중국으로, 南樺太는 소련으로 반환됐다」는 부분을 「대만·南樺太·조선등에대한 지배가 부정되어 주권은 北海道·本州·四國·九州와 부속도서로 한정됐다」고 왜곡기술됐다.

이렇듯 문부성의 검정이 일본의 군국주의가 제국주의침략을 사실상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실행해왔던 것이 사실임에도 이에대한 수정책은 강구하지 않은채 검정이 자주적으로 이룩되고 있다는점만을 강조했다. 이와같은 해명에대해 만족지못한 중공은 연일 人民日報등 각신문을 통해 중국침략사실을 왜곡보도한 일본교과서문제는 양국간의 우의를 해치는 일이며 입으로만 떠드는 日·中共공동성명의 재확인도 믿을 수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공에서 발행되는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紙는 28일 1면에 도오죠·히데끼(東條)前수상의 초상화를 한사람의 남자가 무릎을 꿇은채 먼지를 닦고 있는 모습의 만화로 게재,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비꼬았다.

일본은 입으로는 한일국교정상화의 기본정신을 준수하며 일·중공공동성명을재확인한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나타난 왜곡사실을 행동으로 바로잡으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않고 있는 셈이다.

아시아가 憤怒한 「日교과서 歪曲波紋」

美國의 視角

自國利益에 他國고통 외면
"眞珠灣기습은 忘却…廣島 原爆만 상기"
侵略은 國內문제아닌 "歷史"

【워싱턴29日=李文熙특파원】日本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은 점차 미국내의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 왜곡으로 인해 빚어진 日本과 한국·中共등 인접국가간의 마찰에 더욱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내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크리스천 사이언스모니터등이 일제히 이에 관한 기사를 실으면서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분개하는 이유와 배경을 상세히 기술,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인들의 자세를 비판할수 있도록 보도하고 있다. 특히 그중 한 신문은 「침략」을 「진출」로 둔갑시킨 왜곡 사실을 들어 日本인을 『동경 폭격이나 히로시마만을 상기시킬뿐 진주灣기습과 이로비롯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망각하고있다』는 노골적인 비난의 의미가 담긴 기사를 싣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의 경우 28일자 1면과 다른 면에 나누어 東京發 기사를 실으면서 교과서의 역사왜곡이 관련국 특히 한국과 中國인들의 대단한 분개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한국·中共과 日本과의 앞으로의 관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특히 한국의 한 신문사설을 인용하면서 『36년간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려는것은 전후 日本의 하나의 커다란 방향전환을 암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으며 사사건건 한국과 맞서고있는 북한이 이문제에 관해서만은 한국의 입장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문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했다.

워싱턴포스트紙는 왜곡이 바로 日本文部省의 지침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이것이 2차대전으로 1천8백여만명의목숨을 앗았고 또 日本의 역할에대해 늘민감한 아시아국가들의 신경을 크게 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들은 한국정부가 특별회의 소집과 또한 駐韓 일본대사관의 경비등을 지적, 한국인의 격노를 전했고 中共의 공식항의를 상세히 보도했다.

뉴욕타임스紙는 이날 北京發 기사에서 中共이 日本의 이같은 왜곡처사에 대해 대노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오는10월께 中共을 방문하기로 되어있는 스즈끼수상의 방문전에 이문제가 원만히 수정되지 않는한 회담의 조인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紙는 1937년 南京사건을 왜곡한데 대해 人民日報등 신문들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고 또한 남의나라교과서 개정에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것을 내정간섭이라고한 日本관리들의 말에 대해 『中國인들은 거의 참을수 없을만큼 흥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中共내의 보도를 인용, 『교과서의 검열은 그야말로 日本의 국내문제다. 그러나 日本의 中國과 한국·東南아시아에 대한 침략은 日本의 국내문제만이 아니며 이런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수도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타임즈紙는 『中國인들은 이제 日本이 지난달의 침략의 꿈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충분한 설명을 갖게되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두 신문은 모두 이 문제를 사실보도 위주의 기사를 싣고 있지만 그 내용의 인용구들은 거의 日本의 왜곡 사실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었다.

미국 신문들이 아직 사실 보도선의 조심스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비해 며칠전 크리스천 사이언스모니터紙의 보도는 좀더 직선적이었다. 『日本, 2차전 역사에서 「침략」을 삭제하다』의 제목을 비롯해 전체적인 기사의 흐름이 日本의 침략역사 왜곡에 아주 비판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어 『日本의 새로운 개념에 의하면 日本은 한국·中國·東南亞에 대해 침략을 한것이 아니라 진출한 것뿐이다』식으로 기사의 서두를 비롯해 그 내용중 한대목에선 日本의 영화제작 태도에대해언급, 역사의 왜곡은 영화 속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다.

2차대전에 관한 日本영화는 모두 일본군의 영웅적 행동과 日本인의 고통만을담고 있을뿐 日本이 왜 전쟁의 와중에 들게된 것인가, 이로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고통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언론들은 물론 이 문제에 관한 日本내의 반발도 곁들이고 있다. 또한 이 문제가 아직 日本과 한국·中國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조심스런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톤은 침략의역사를 깊이 사죄하면서 그간 경제적 부흥만을 위해 진력해온 日本이 이제 혹시 본래의 얼굴일지도 모를 다른 얼굴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에 커다란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이었다.

미국내의 對日本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다거나 나쁘다고는 볼수 없다. 하지만 누적되는 對美 수출초과와 이로인한 자동차등 미국내의 관련산업·실업·최근의 IBM社 컴퓨터 절취기도사건등 경제적 파렴치설등으로인해 미국인의 對日本이미지는 전보다 현저히 변질되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灣 기습으로 절정을 이루고있는 침략역사왜곡은 미국인들에게도 분개의 감정을 자극할것이 틀림없다고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메아리

우리같은 大統領制나라에서 국무총리란 자리의 성격은 아무래도 명확치 못한데가 있다.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받아 행정각부를 統轄한다』(제62조②). 統轄한다는 뜻은 정부조직법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長을 지휘감독』(제15조)하는것으로 부언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지휘감독하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무위원도 『국정에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헌법63조②)하는 자격은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다.

의례적인 행사를 뺀다면 국민들이 흔히 보는 국무총리의 모습은 그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일 것이다. 곧잘 텔리비전 뉴스는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들겨 국무회의의 개의를 선언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의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요 국무총리는 아니다. 국무총리는 부의장으로서 의장을 대행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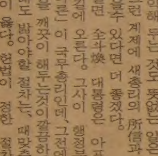
국무총리의 자리가 이처럼 생각과 다른 일면은 우리 헌법이 大統領制 뼈대에 議院內閣制를 가미하고 있는데서 온다. 국무총리는 바로 두제도의 接點에 위치하는것이다. 좀 모호한 성격은 경제총리」건, 「정치총리」 또는 「정치한총리」건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고 이것만을 가지고 국무총리란 자리를 가벼이 볼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헌법46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第1順位者다. 대통령의 권능과 책무가 막중한 만큼 그 권한을 대행할 第1順位의 비중은 매우 크다.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막강하다해도 대통령의 國法上 행위는 모두 그의 副署없이는 행해질 수가 없다.

한달이레

이같은 兩面을 반영한 것이 헌법에정한 국무총리의 임명절차다. 헌법제62조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것이다.

지금의 金相浹총리 직함앞에 정식으로는 署理란 꼬리가 붙어야하는 까닭은 바로 이것이다. 그가 취임한지는 한달 하고도 이레가 되지만 그의 임명절차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金昌悅 <編輯委員>

당초 金총리가 지명되었을때 느꼈던 淸新한 놀라움을 생각하여 이것은 분명 서먹한구석이다. 그가開口一聲 『우리가 사는 이나라는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입니다. 막힌데는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죠』했을때, 宜寧참사, 李哲熙·張玲子사건 뒤끝의 民心은 많은것을 음미하고 기대했던게 사실이다. 그같은民心의 동향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통하여 집약해 두는 것도 뜻없는 일은 아니다. 그런 계제에 새총리의 所信과 경륜을 들을수 있다면 더 좋겠다.

새달들면 全斗煥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른다. 그사이 행정부를 지킬 「어른」이 국무총리인데, 그전에그의 직함을 깨끗이 해두는것이 깔끔하다. 아무래도 밟아야할 절차는 때맞추어 밟아 둠이 옳다. 헌법이 정한 절차는 그것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더라도, 墨守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국회를 열만한 안건이나 시간이없다할것도 없다. 헌법절차이상의 안건이 또어디있는가. 그를 위해서 단하루 『오후 2시 이후』 한나절의 본회의면 족할텐데 말이다.

◇개젖 먹고 자란 比아기 개의젖을 먹고 자라난 필리핀의 3살난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지켜보는가운데 젖을 먹여준 개와함께 놀고있다. 조우엘·자카리아스라는 이름의 이 어린아이는 필리핀 중부의 레이테지역에서 1년이상 개의젖을먹어 개와 똑같이 행동하고 흉내를 낸다고. 【마닐라28日UPI=聯】

海外토픽

國校영어敎育 논의
★中共학부형찬반엇갈려

중공학부형 사이에 최근국민학교의 의무적인 영어교육실시에대한 찬반의견이 분분.

중공국민학교들이 4학년때부터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대한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이 신문사들에 쇄도하고있는데 한 학부형은 신문기고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싫어할뿐만아니라 영어공부에 많은시간을 빼앗기고있으나 영어가 대학에 진학하는 소수에게만 필요할뿐 학교를 졸업하면 아무쓸모도없다면서 영어를 선택과목으로 취급하도록 당국에 건의. 반면 어떤 학부형은 영어가 중공의 사회주의건설에 더욱필요해지고 있다면서 대학진학을 하지않는 학생들에게 영어가 쓸모없다고말한다면 장차 버스차장이될 학생들에게 화학이나 물리가 필요있겠느냐고 반문. 【北京=AP】

사람이 개물어뜯어
★아내 바가지에 격분

미국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서는 프랭크·마제오라는 남자가 자신의 개를 무는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경찰에 의해 정신감정을받기위해 72시간동안 병원에 입원됐다.

텁수룩한 한 남자가 울부짖는 자신의 개를 물은뒤 공중에 내동댕이 치는것을 목격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 현장에 달려온 경찰에 의해 신문을 받은 이남자는 『개에게 우는 연기를 훈련시키기 위해 무는체하면서 개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허리케인이라는 이 개에는 아무 상처가 없었으며 시립동물보호소에 보호된 경찰은 마제오씨가 지난주 개와 자신중 양자택일하라는 부인의 바가지를 들은뒤 아이다호주의 집을 뛰쳐나왔다고 진술했음을 귀띔. 【버뱅크(美캘리포니아州)=UPI】

同性愛법규제 철폐
★佛 마지막法조문 削除

프랑스는 의회가 동성애금지에 관한 유일한 법조문마저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동성애를 법의 규정에서 제외시켰다.

프랑스에서 동성애문제는 지난 드골정부당시 동성애자에 대한 2년이하의 징역과 2만프랑(2백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지금까지 동성애호단체의 비판의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미테랑의 사회당은 보수당의 『가정보호』라는반대이유에도 불구, 집권전 선거공약을 지키기위해 의회에서 이같은 법의 폐기안을 통과시키게 된것이라고. 【파리=聯】

美, PLO요청땐 사흘내 美軍파견

【워싱턴28日UPI=聯】미국은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西베이루트 철수에대한 협조요청을 받을경우 미해병대를 72시간이내에 레바논에 상륙시킬수 있다고 미국방성의 한 고위관리가 28일 밝혔다.

러프너將軍 別世

【워싱턴28日=聯】한국동란당시 美보병제2사단장을 지낸 클라크·러프너장군이 지난26일 79세를 일기로 월터·리드육군병원에서 타계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28일 보도했다.

2차대전의 영웅중의 하나로 추앙받고있는 러프너장군은 1951년 대북괴전의 활약으로 훈장을 수여받은외에도 미육군의 최고영예의 하나인 십자무공훈장을 받은바있다.

◇生後 8개월…휘파람의 명수 루이스·코헌박사부처가 8개월된 딸 케리양이 입을 오므려 휘파람을 부는 모습을 지켜보고있다. 휘파람에 타고난 재능을가진 케리양은 묘기대회에 나가 어머니마저도 흉내낼수없는 휘파람솜씨를 선보일것이라고. 【마콘(美조지아州) 28日AP聯=聯】

外信알림

中共, 대형衛星개발

中共은 대형 인공위성을 低고도의 고정궤도에 쏘아 올리기 위한 3단계로키트를 개발중에 있다고 관영 신화사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신화사통신은 중공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CZ3로키트가 액체연료를 사용할것이라고 말했을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北京의 외교소식통들은 액체연료로 추진되는 이 3단계 CZ3 로키트가 낙후된 중공의 진화시설개선과 같은 통신분야에 이용하기 위한것 같다면서 이에는 중공이 이미 발사한바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에 사용한 것과 비슷한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北京=AP】

美고위층 기밀빼내

美의회에서 일하고있는 소년들에게 많은 의원들이 동성애행위를 강요한 사건이 문제가되고있는 이때 이번에는 많은정부고관및 의원들이 워싱턴주재 각국대사관으로부터 매춘부를제공받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됐다고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미ABC·TV방송을 인용, 이같은 사실을전하면서 미연방수사국(FBI)은 이미 이사건에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우에따라서는 많은 정부고관과 의원및 그비서등이 해임또는 스파이혐의로 신문을 받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또 ABC방송이 지난 27일밤 익명의 매춘부를 등장시켜 이같은 미정부고관및 의원들의 매춘부접촉실태를 폭로하는 가운데 미정부 고관으로부터 기밀을 빼내기위해 매춘부를 이용하는 국가는 소련을 비롯한 이스라엘, 서독, 네덜란드등수개국에 이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東京=聯】

이라크, 休戰희망

사담·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오는 9월초 바그다드에서 개막될 비동맹정상회담에앞서 이란과의 휴전을바라고있다고 프랑스의유력지 르·몽드가28일 보도했다.

르·몽드는 또 후세인대통령이 이란—이라크전 휴전을 위한 알제리의 중재제의를 『기꺼이 수락』할 용의가있으며 어느쪽이 침략자인지 밝혀줄 국제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파리=AP】

美合參개편 검토

존·베시 미합동참모본부(JCS) 의장은 28일 군사전략문제에 대해 대통령이각군참모총장의 견해를 개별청취하는등 합참운용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베시대장은 이날 하원군사위조사소위에서의 증언을 통해 자신과 각군 참모총장들이 이같은 합참운용개혁안을 마련, 레이건 대통령과 캐스퍼·와인버거 국방장관에게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싱턴=AP】

中共, 자본주의化

중공의 지도자들이 현정책을계속 고수해나갈 경우 중공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형태로 변화될 것이라고 시애틀의 워싱턴대학의 스티븐·청 경제학교수가 29일 말했다.

홍콩태생의 중국인인 청교수는 런던의 경제문제연구소에의해 출판된 책에서 이같이 예상했으나 그 변화과정이 급속히 이루어지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런던=聯】

화소식

도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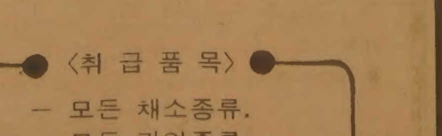
○채소 ○과일 ○화초

야채·과일·화초·꽃등을 취급하시는 교민여러분, 또는 취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매업을 시작했읍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온타리오 FOOD TERMINAL까지 가실 필요가 없읍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품목은 직접 PICK UP하시거나, 주문할 수 있읍니다. (단, 시장가격의 변동이 있을때 품목에따라 5％의 차이가 있겠음을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은 $150이상 주문시 해 드립니다. (배달은 오후1시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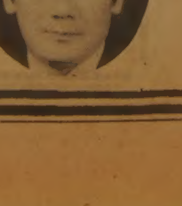
※시간 : 오전9시～오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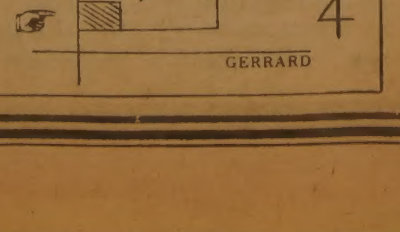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품질·가격·신용보장〉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덕열



대학新設·모집定員 묶여

내년大入 競爭치열예상

응시자 63만…3대1 넘을듯

專門大 인기없어 混亂가중

내년 대학입학 경쟁이 입시 사상 가장 치열할 것 같다. 이같은 이유는 문교부가 83학년도에 대학신설을 일체금지하고 있으며 모집인원도 늘리지않을 방침인데다 응시예정자는 전년도 보다 자연증가를 빼고 7만여명이나 늘어날 전망이어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때문에 입시관계자들은 대학의 모집인원 대 응시자의 비율이 82년 2·78대1에서 내년에는 3·2대1 이상으로 훨씬 높아질것으로 전망하고있다.

29일 문교부 분석에따르면 내년대학입시를 위한 학력고사 응시예상자수는 63만명으로 자연증가분 2만명을 포함, 금년 (54만7천9백명) 보다 9만명가까이 늘어나게된다.

이에따라 금년의 경우 전·후기 4년제대학의 모집인원 (19만7천1백4명)대비 학력고사 응시자비율이 2·78대1이었던것이 내년도에는 3·2대1로 훨씬 높아지게돼 눈치작전등 예년에없던 극심한 입시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내년에 대입경쟁률이 높아지게되는 이유는 ▲정부방침에따라 내년도에는 신설대학이 없는데다 대학의 모집인원조차 거의 늘리지않기로 방침을정해 대학의 절대수용인원이 한정돼있고 ▲그동안 대학지원자들을 상당수 흡수해왔던 전문대에 애초부터 지원할사람이적고 그대신 대학으로 더많은 인원이 몰릴것이 예상되며 ▲현재 전문대나 비인기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승급을포기, 다시 일반4년제 대학진학을 위해 입시준비를하고있어 전체지원자가 크게 늘어날전망이기때문이다.

실제로 금년의 경우 전체 학력고사응시자 중 85%가량인 46만3천1백84명이 전기대에 지원, 2·79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후기대나 전문대를 지원, 전기대의경쟁률을 상당히 줄인것으로 나타났다.

문교부는 해마다 대학지원자의 자연증가분을 메우기위해 대학을 신설하거나 정원(졸업정원)을 늘려 왔는데 금년의경우 상황을바꿔 대학신설인가신청을 모두 [illegible] 으며 대학의 양적팽창에 교수요원의 부족, 시설미비등을 이유로한 교육의 질저하를 막기위해 내년도부터 당분간 4년제대학의 모집인원을 늘리지 않기로했다.

한편 전문대는 그동안 상당수의 재수생을 흡수해왔으나 작년부터 4년제대학이 졸업정원제를 실시함에따라 사실상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일반대학에 학사편입이 불가능하게돼 인기가 떨어져 금년의 경우 전문대지원자가 줄어들어 예년보다 재수생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인기학과의 학생들도 졸업정원제실시로 전과가 불가능하게 돼 다시 재수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지난해까지 전문대에 지원한 학생들은 단기간의 고급교육을 받는다는 목적보다는 사실상 대학입시에서 낙방, 전문대에 들어가 2년을수료한뒤 일반대학의 3학년에 학사편입을 해서 대학에 진학하기위한 편법으로 이용해왔다.

또 이같은 이유로 현재 전문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중 상당수가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대학을 응시할것으로 보여진다.

전문대는 전국에 모두 128개교에 모집인원은 20만6천2백85명인데 금년의 경우 전체 지원자수는 불과 85%로 모집인원에 크게 모자랐다.

서울시내의 학원가 집계에 의하면 대학 입시 준비를위한 학원 수강생중 30%이상이 현재 전문대학의 재학생들이고 나머지가 순수 재수생들로 밝혀졌다.

대학지원자의 구체적인 숫자는 대입학력고사를 보기위한 체력장검사희망자의 숫자로 밝혀지게되는데 현재신청접수가 마감된 제주도교위의경우 지난해의 7천9백74명보다 6·1%늘어난 8천4백64명으로 집계됐다.

문교부는 내년도 대입시경쟁률이 높아짐에따라 극심한 입시혼란을 예상, 이를 방지하기위해 이미 각시·도교위별로 진학지도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대한노인회회원들이 3·1운동의 진원지인 파고다공원에모여 일본의 역사왜곡과 각료들의 망언을 규탄하고있다.

"日本은 역사를 直視하라"

대한노인회, 對日성토대회 열어

대한노인회 서울鍾路·中部지부회원 2백여명은 29일낮12시 서울鍾路區鍾路2街 파고다공원에서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과 일본각료들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토대회를벌였다.

노인들은 이날 공원팔각정에서 30여분간 성토대회를벌인후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라」「3·1운동 증인 살아있다」「小川망언취소하라」는등의 구호가 적힌 피킷을 들고 거리로 나서 일본대사관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려다 경찰의 제지로 해산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서울城北지부회원 1백여명도 이날상오10시 비원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腦炎모기 번식 늘었다

全南지역 82%…작년比 15%많아

일본 뇌염모기가 크게번지고있는 가운데 전남莞島에서 첫 뇌염증세환자가발생했다.

29일 보사부에 따르면 뇌염모기의 밀집도는 지역에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있는데 전남과 제주지방이 82%와 66%로 가장많았고 전북지방이 37%를 나타내고있다.

이 뇌염모기의 밀집상태는 보사부가 지난19일부터 24일까지 전국각지방별로 모기를 샘플채집, 그중 뇌염모기를 분류해낸결과 밝혀졌는데 지난해같은기간중 전남이 67%, 전북이 16%인것에 비하면 현저히 늘어난 것이다.

보사부당국자는 최근 간헐적으로 비가내리다가 폭양이 내리쬐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뇌염모기가 크게번식하고있다고 밝혔다.

莞島서 첫발생 腦炎증세 환자

【光州】 뇌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첫뇌염증세환자가 발생했다.

전남의대 부속병원 의료진은 29일 지난27일부터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莞島郡蘆花邑防西里 崔敬淳씨 (41)의 3남 永喆군 (11·넙도국교4년)을 뇌염증세환자로 보고 치료를 펴고있다.

永喆군은 심한 고열과 경련증세를 일으키면서 의식불명상태로 蘆花邑의 大宇병원을 거쳐 27일 전남의대 부속병원으로 옮겨와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전남도 보건당국은 崔군의 혈청을 채취,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聯】

오늘밤 全國 燈火管制훈련

내무부는 30일하오 전국 50개시와 麗川, 半月공단및 18개 읍지역에서 야간등화관제 훈련을 실시한다.

30분동안 실시될 이번 훈련에서 지하철공사와 운행중인 열차, 한국기 선박은 제외되나, 각가정은 경계경보와함께 소등, 완전히 빛을 가린 TV도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된다. 또 모든 차량은 공습경보때는 완전소등하고 정차해야 한다.

慶北지방 완전解渴

장마비 3일째…태풍도 北上중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28일에이어 29일에도 남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가운데 많은비가왔다.

29일 자정부터 하오2시까지 木浦지방에는 101·9mm가 내려 가장 많이왔고 釜山도 73mm, 경북지방도 평균43·9mm의 비가내려 완전해갈됐다.

지역별로는 安東이 101mm로 가장많이내렸고 醴泉84, 聞慶82·8, 永川64mm등이었다.

지역에따라 호우로변하고 있는 비는 장마전선이 중부와 남해안지역을 오락가락하기 때문인데 중앙기상대는 이런날씨가 2~3일 계속될것같다고 전망했다.

또 태풍 앤디호는 29일 하오현재 대만부근에서 서북진하고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영향이없고 2~3일후에 북상할경우 열대성저기압으로 변해 큰 비를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9일 하오2시현재 지역별 강우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mm)

▲木浦=101·9▲光州=18·7▲全州=10·4▲釜山=73▲大邱=12·3▲忠武=16·7▲濟州=24·5

釜山, 豪雨피해 커

【釜山】호우주의보가 내려진 釜山지방에 29일 하오3시현재 78mm의 비가 내려 가옥붕괴 3채 전파 1채 반파 2채 가옥침수 50채 언덕붕괴 1개소 석축유실 3개소 도로침수 2개소(5백m)등의 피해를봤다.

이번비로 가장 큰피해를본곳은 釜山東區草梁2洞85의 높이 3m 언덕이 붕괴되는 바람에 언덕아래에있던 양은순여인(32)집이 전파, 5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고 이웃 7가구주민29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했다.【聯】

벼락맞아 1명死亡

【全州】28일 하오7시께 전북完州郡三禮邑后亭里 비비정마을앞 농수로 제방위를걸어가던 이마을 김상태씨(24)가 벼락에맞아숨졌다.【聯】

자동차 臺數기준 市道知事에 위임

交通部방침

교통부는 29일 장의자동차의 공급대수기준을 각 시도지사가 책정토록 위임하고 제주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용 자동차의 댓수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한편 교통부는 사업용자동차의 대수기준 책정권도 점차 시도지사에 위임할 방침이다.

5行뉴스

◆暴雨로닭4천마리떼죽음 【牙山】28일하오5시께 牙山郡屯浦面봉화리1구 김의태씨(36)의 양계장 2동이 심한 폭우로 무너져 닭 4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3백7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保險金 6천만원 받아 【安東】경북義城郡鳳陽面花田洞105 權봉길씨(44)가 지난2월28일 동해생명보험 安東영업국에 3년만기인 1백만원짜리 알뜰적립보험 3종에 가입, 매달 7만6천5백90원씩 4개월동안 30만9천3백60원을 불입한후 교통사고를 입어 6천10만7천99원을 받았다.【聯】

建築업자 賂物받아

南原郡廳계장 拘束

【光州】光州지검 수사과는 29일 전북南原郡廳 산림과보호계장 李炳喜씨(42)를 뇌물수수혐의로, 건축업자 成永俊씨(47·光州市西區西1洞147)·鄭來錫씨(47·光州市北區龍田洞636)등 2명을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12월28일 건축업자 成씨등이 신청한 전북南原邑下井洞산58번지 일대의 산림벌채허가를 지난 5월말까지 미뤄오면서 이들로부터 20여차례에 걸쳐 모두1백3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聯】

李·張부부사건 被告들 最後진술

"모든 構想 본인이…책임지겠다" 李

"被害 변제위해 남편에 善處를" 張

李圭光 "나는 「검은 그림자의 巨物」아니다"

李哲熙·張玲子부부에게 법정최고형이 구형된후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 李哲熙피고인은 『좋은 뜻에서 출발한 것이지 누구를 속이거나 불가능하고 허황된것을 시도한게 아니다』면서 『하지만 사건이 이렇게 되고보니 죄송하기 짝이없다 共榮토건등 회사관계자들이 피해를입었고 회사자체도 도산해 또다른피해를 낸것을 마음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피고인은 또 『지난해 10월까지 아무일없이 협조해오던 업체중 라이프주택이 어음을 3년예정을 바꾸어 청산을 요구하는바람에 한꺼번에 많은돈이 필요해 무리한 주식 투자를했고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런결과가 됐다』고 말하고 『다른건설업체를 인수하고 美國에서 5억달러의장기저리차관을 도입해 여러각도로 共榮·日新에대한 조치를 하려했으나 각자기 연행됐기 때문에 허사로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李피고인은 부도가 연쇄반응을 일으켜 이런결과가 온것이 대단히 마음아프다며 『모든재산이 압수당했지만 피해를줄이기위해 힘닿는데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共榮 회사관계자, 大和산업 행장등 은행관계자, 회사의 임직원들은 모두가 자신의직장을위해 최선을 다해온사람들』이라고지적, 관대히 처벌해줄것을바란다고 주장하는한편 『李圭光피고인에 대해서도 일생을군에바치고 지금도 국가와 민족밖에 모르는 분인데도 뜻을한상펴지못하고 은둔생활을 해온것을도와주려했던것이 오히려 누가돼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李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이번사건은 사업에대한 구상에서부터 어음거래교섭등 모든것을 본인에게돌리고 협심이 있는 집사람은 관대히처분해서 집에 돌아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張玲子피고인은 『불가의 소승들에게 큰심려를 끼쳐드렸고 불자들의 가슴에못을 박았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누를 끼치고 시민경제를 혼란시켜 많은피해자를낸 죄를 허망한 말로 어찌 속죄할수 있겠느냐』면서 『검찰논고대로 원천적 책임은 내게있고 벌도 내가다 받겠으며 평생을 두고 속죄하겠다』고 흐느꼈다.

張피고인은 이어 『日新의 朱회장은 철강업계의 실력자였고 共榮의 邊사장은 건설업계의 다크호스였으며 大和산업은 한돌도안된 철모르는 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죄는 내게 있으므로 大和식솔들은 부디 무죄방면, 앞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다.

張피고인은 또 『李圭光장군은 친형부로 언니와 형부 밑에서 학교를 다녔고 아버지가 않아 누워 있는동안 아버지역할을 해주었다』고 흐느끼면서 『우리부부의 잠정재력으로 피해변제가 가능했다. 부부는 일심동체지만 실제적으로 일한사람은 자신이었으므로 『남편에게는 도의적 책임만을 물어 변제활동을 벌일수있도록 선처를 해달라』고 진술했다.

李圭光피고인은 『내가 검은그림자의 거물같이 대단하게 발표됐는데 그 거지적인 배후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이 간다. 이렇게되면 부모·형제사이에 용돈을 주고받아도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해야할것이다. 사람을 상대로했는지 죄를 상대로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강한어조로 말했다.

林在秀피고인은 『은행에몸담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 밖에는 죄가 없으니 살펴달라』고 말했고 孔德鍾피고인은 『내 개인 문제로 현재 금융단에서 80년대를 신용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같은 자세가 소극적으로 되지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邊康雨피고인은 『여기나와 있는 회사간부들은 못난 경영주를 만난것이 잘못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朱昌均피고인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정부에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 日新제강은 연간2억달러를 수출할 능력이 있으므로 이회사를 정리할때에 해체하지말고 새경영자가 나와 회사전체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長長9시간20분 「말의盛饌」

李·張사건求刑公判 스케치

張여인嗚咽…변호인들 情狀참작呼訴

○…28일 李·張부부 사건구형공판은 장장9시간 20분동안 계속되는동안 피고인 31명과 변호인29명의변론과 최후진술로 공판개정후 최대의 말성찬장이 되었다.

특히 4시간45분동안 일례이 이상으로 계속된 변호인의변론에서는 대부분 정상을 참작, 무죄를 주장했다.

共榮토건변호인 金一주 변호사는 『中東熱沙에 태극기를 꽂고 땀흘린 1만2천 共榮식구들이 목자잃은 양처럼 邊康雨사장이 돌아오기를 목마르게 기다린다』

金東煥 변호사는 『철강산업에 일생을바친 朱昌均 피고인에게 과연 조국은 징역형을선고해야 할것인가』 李在祥 변호사는 『弘德鍾 피고인은 이제 60세가넘어 수용생활에 건강을 지탱하기가어렵다』며 각각 정상참작을 호소.

任文淳피고인의 변호인 任와彬변호사는 변론 끝부분에서 『任피고인이 머리가 좋아 李哲熙피고인이 아기부에서 데려고왔는데 결국 공판정까지 데리고왔다』고말해 방청석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金鍾茂피고인의 변호인 洪一源변호사는 『현재의 경제여건에서 사채가 기업운영의 불가피한 자금원으로써 이번사태는 이같은 경제여건이빚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상공부와 재무부가 높은 나무에 오르게 만들어놓고 검찰은 밑에서 흔들었다』고말

선 都台求변호사는 『金피고인이 張여인과 이혼한후 5년동안 자녀들의 아버지겸 어머니역할을 해왔다』며 자녀들의 근황을 설명하는동안 張여인은 시종 흐느껴울기도했다.

都변호사는 金피고인의딸(16)은 이사건으로 학교진학을 포기했고 아들(12)은 미국이모집에서 병이들어 몸져누운채 부모의 손길을기다리고있으며 金피고인또한 아무도 면회올 사람이없는 외로운 피고인이라며 『어머니가자녀의양육비로준돈을받은것도죄가되느냐』고지적했다.

"背後규명등 미흡" 民韓 徐부대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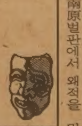
民韓黨의 徐淸源부대변인은 29일 李哲熙·張玲子사건에 대한 검찰의구형에대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검찰은 자금의 사용처·배후규명에 좀더 신중한 추궁을 했어야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공식논평에서또 『民韓黨은 검찰의 구형과관계없이 黨內의 조사特委를 통해 사건을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日本속「한국인」

「뿌리」찾아 來韓한 李家正文씨

4백년만의 謁墓…韓日관계 "恨"서려



장대비가 쏟아지던 지난27일 하오 서울江南區院趾洞 야산의 한묘소에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섰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한국식으로큰절을 하고 두손으로 헌작(獻酌)을하면서 눈에선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철도지난 여름에 비를 맞으며 성묘하고있는 노신사는 일본인으로 전朝日학생신문회장을 지냈던 니노에·마사후미박사(74·李家正文·사진)였고 그와 묘소는 평생동안 찾아헤맨 그의 「뿌리」였다.

니노에박사의 「뿌리」는 정유재란때 南原벌판에서 왜적을 맞아 싸우다 막료들과 함께 전사한 전라도병마절도사 李福男장군. 이때 왜군들은 李장군의 아들 李聖賢을 볼모로 데려갔는데 그가 바로 일본 니노에가문의 시조다. 니노에·마사후미박사는 그렇게 시작된 李장군의 12대후예.

니노에박사는 어렸을때부터 자신의 이름에 「李」자가 들어있는데 의심을 품어왔다. 이러한의심은 한국사람의 성씨를 가지고 있다는 놀림을 받을때마다 깊어갔고 이를 규명해보자는 결심을했다. 지난60년간 틈이 날때마다 조상의 발자국을 추적한 끝에 지난80년 자신이 李장군의 후손이며 羽溪李씨의 29세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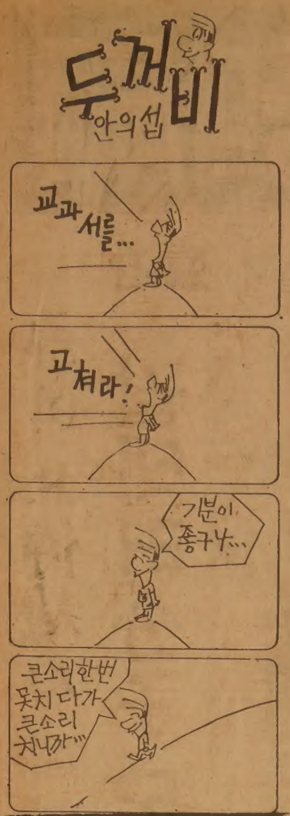
그는 지난80년10월 「뿌리를 찾아60년」이란 기록을 「뿌리」를 찾은 책에 담았다.(한국일보80년10월4일字7면) 이 책이 발간되자 되도록이면 한국인임을 숨기려는 일본 사회에서 「나는 자랑스런 한국인의 후예」라고 밝히고나선 니노에박사의용기를칭찬하는사람이많았다.

『책을 펴낸후 곧 바로 한국에와 李장군묘소에 참배하려했으나 건강이나빠, 이제야 오게됐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묘소로 달려와 4백년만에 알묘(謁墓)를한 니노에박사는 눈물을 멈추려 하지않았다.

지나간 韓日관계사의 恨이 서린 눈물이었다.

성묘를 마친 니노에 박사는 한국의 羽溪李씨 20촌 친척들과함께 李장군이 전사한 南原과본관인 羽溪등지를 둘러보며 뿌리의 현장을 확인했다.

『뿌리없는 나무가 있을수 있나요. 하물며 사람은 더하지요』 일본이 한국침략의 역사를 왜곡해 세상이 떠들썩한때에 일본에살면서 뿌리를 찾아낸「한국인」을 만나보고 자랑스러움을 느꼈다.【鄭宋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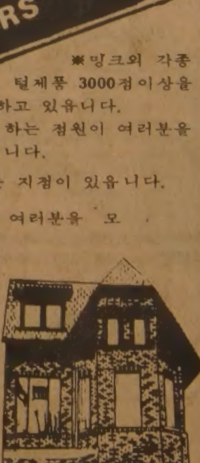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보십시오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길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재국 해주는 최근의 신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켙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레바논危機 중대局面

美국무성 "이軍 최후공격 臨迫"

하비브仲裁 실패할 경우 팔테러分子 모두除去
베긴

◇西베이루트 연7일째 불바다 이스라엘 전폭기들의 西베이루트공습이 연7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이스라엘기들이 로키트탄을 발사한 西베이루트의 민간인거주지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있다。사진 우측에 새로 투하된 폭탄이 폭발하고 있다。【베이루트28日AP電送=聯合】

【워싱턴28日聯合】 이스라엘의 서베이루트공습이 연1주일째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미정부관리들은 28일 레바논위기가 중대한국면에 접어들고있음을 시인했다.

익명을요구한 한 미국무성관리는 레바논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필립·하비브미중동특사에게 부여된 시간은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무성주변에서는 西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최후공격이 앞으로 수일안에 단행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전망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미국무성은 레바논 위기종식과 관련된 어떠한 최후통첩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관리들은 이제 미국이 메나헴·베긴 이스라엘 정부를 억제시키기는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미정부관리들은 이스라엘정부가 이틀동안의 최종시한을 하비브특사에게 부여했다는 정보에 관해 논평하기를 거부했다.

한편 단·피셔 미국무성대변인은 이날 레바논 사태에 관련된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전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전을 준수할 것을촉구했다.

【예루살렘28日聯合】 메나헴·베긴이스라엘수상은 28일 만일 필립·하비브미중동특사의 레바논사태중재노력이 실패할경우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비롯한 레바논영내로부터 모든 팔레스타인테러분자들을 제거할것이라고 말했다.

베긴수상은 이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학자들과 레바논사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같이 말하고 또 하비브특사가 앞으로 48시간안에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평화적인 베이루트철수여부에대한 『명백한언질』을 PLO측으로부터 얻어내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비브특사는 27일예루살렘에서 베긴수상과 회담한후, 키프로스를 거쳐 이날 베이루트를 재방문, 이스라엘과 PLO간의 제7차휴전을 마련하기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時限설정 없다"
레이건 레바논해결 樂觀

【워싱턴28日=李文熙특파원】 레이건미국 대통령은 28일밤(한국시간29일상오) 레바논위기를 해결하는데있어서 여하한 시한도 설정한바없으며 여전히 사태해결을 낙관하고있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밤 백악관에서 가진 全國TV중계기자회견을통해 레바논사태에관한 기자질문에 답변, 그같이 말했다.

앞서 신문보도들은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이 레바논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한 시한이 촉박하다고 말한것으로 전했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와는 달리『레바논사태와 관련 어떠한시한도 설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후 12번째가되는 이회견에서 또 시베리아-西유럽간 가스관건설을 봉쇄하기위해 對蘇경제제재를 확대하겠다는 결심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레너드、링 떠난다
"눈 負傷후 의욕잃어"

【워싱턴28日UPI=聯合】 세계적인 프로복서 슈거·레이·레너드(26)는 28일 복싱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 링에 복귀하지 않을 결심이라고 밝혔다.

눈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바 있는 레너드는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나는 아직도 한사람의 관중입장에서 복싱을 사랑한다. 나 자신의 복싱에 대한 재능은 인정하나 의욕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눈찔린 蘇펜싱선수 入院9일 끝내숨져

【로마28日聯合】 80년 모스크바올림픽대회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던 蘇聯의 블라디미르·스미르노프선수(28)가 9일전 이곳에서 거행된 세계펜싱대회 경기도중 상대편 펜싱劍에 눈을 찔려 의식을 잃고 입원가료중 28일 숨졌다고 이탈리아 ANSA통신이 보도했다.

스미르노프선수는 이번 대회의 단체전에 출전, 西獨의 마티아스·베르선수와 대전하던중 베르선수의 펜싱劍이 마스크를 뚫고 이마를치는바람에 뇌에 부상을입고 로마의 게멜리병원에 입원했었다.

徽文 아이스하키팀 加원정경기, 첫勝利

【토론토29日=柳承珉기자】 캐나다를 순회하며 친선경기를 벌이고 있는 徽文高 아이스하키팀은 28일밤 토론토체스우드경기장서 가진 2차전서 웨스트우드체육관팀을 8-5로 물리치고 첫승리를거두었다.

徽文高는 27일의 1차전서는 캐나다동포팀인 花郞에 5-2로 패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治勳형의 榮光 이어받겠어요

내달 渡日하는 꼬마棋士 趙善津군
어깨너머 배운바둑…아마 6단
半年만에 해태盃서 우승차지

趙治勳名人이 고바야시9단의 도전을뿌리쳐 새삼 日本棋界의 정상임을 확인한것과 때를맞춰 그의 뒤를 잇겠다는 꼬마기사가 나타났다. 금년봄 光州市 봉주국민학교를 졸업한 趙善津군(12)이 바둑수업차 8월말께 일본으로 떠나게 된 것이다. 日本棋院 협외담당이사로있는 안도·다께오(安藤武夫) 6단의 문하에서 바둑수업을 받게된 이소년은 趙治勳의 뒤를 이어 세계바둑계의 覇者가 될것임을 다짐했다.

공교롭게도 소년은 섬까지 趙名人과 같다. 농장을 경영하는 그의 부친 趙圭成씨(47)는 5급수준의 평범한 바둑애호가로서 趙南哲8단을 숙부로둔 趙治勳9단의 바둑환경에는 미치지못한다. 趙4관왕은 6세때 渡日하여 11세때 입단을 마쳤다. 원래 10세에 입단하려다 실패하자 자살까지 시도한 다음의 일이다. 이에비하면 趙군의 현재 棋力은 아마 5~6단정도. 그가 사사하고있는 鄭東植4단에게 2점접바둑으로 강세를 보인다니 아마로서는 정상급이라하지만 아직 入段에의 길만도 까마득하다.

◇8월말 바둑수업을위해 日本으로떠날 예정인 趙善津군과 그의 日本行을 주선한 尹奇鉉8단。

그러나 趙군의 渡日을 주선한 尹奇鉉8단은 그의 남다른 棋才를 믿기때문에 대성을 확신하고있다. 趙군은 작년 5월 제2회 해태배쟁탈 전국어린이바둑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때 그는 바둑을 배우지 불과 반년만이었다고한다. 그는 재작년 겨울방학때 바둑두는것을 어깨너머로 배워 그의 자질을 인정한 아버지가 한국기원 光州지부의 프로기사 康賞洙3단에게 지도받게했다.

아버지는 趙군이 단기간에 해태배를 쟁취하자 기사로대성시키기위해 올봄 국민학교를 졸업한후 중학진학을 포기한채 한국기원생으로 鄭東植4단의 집에서 숙식시키며 渡日수업의기회를기다렸다. 渡日수업을 받은바있는 尹奇鉉8단에게 부탁했는데 마침 기다니·미하루(木谷美春)의 미망인 기다니 여사가 지난4월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뜻을 이루게됐다. 기다니여사의 일행중에는 尹8단과 친한 이시다(石田芳夫)9단이 끼여있었으며 이시다9단이 日本에 돌아간후 안도6단에게 교섭해주었던것. 안도6단은 日本의 기사중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는층이어서 趙군의 숙식등 일체를 떠맡는 조건으로 매월 3만엔(약9만원)을 지불하면된다.

趙군의 渡日수업은 趙治勳이후 맥이끊어진 在日한국인 기사의 전통을 잇는다는점에서 뜻있는 일로 평가되고있다. 한동안 한국인기사들의 도일수업은 해방전에 있었던 趙南哲8단의 경우는 제외하고 60년대에들어와활발했다. 金寅8단, 尹奇鉉8단, 河燦錫7단, 曺薰鉉9단, 趙治勳9단등 6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한국과 일본棋界의 정상급으로 발돋움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70년도에 尹奇鉉8단이 귀국한 이후 새로운 渡日수업자는 나오지 않았다.

臺灣은 70년대에 10명의 소년기사들을 日本에보내 이중 8명이 입단하는등 호조를 보여 불원 제2의 林海峰을 꿈꾸고있다. 中共도 최근 들어 청소년기사들의 渡日수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던판에 趙治勳의 영광을 승계하려는 이 홍안의 미소년은 『부모들을 떠나 어떻게 지내겠느냐』는 질문에 총명해보이는 두눈에 눈물이 가득 괴었다. 그는 지금부터 바둑頂上에의 험난한길을 걷고있는셈이다. 【梁平기자】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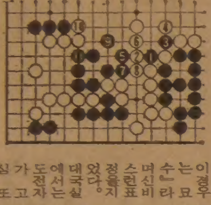
第4局 第7譜 92~107 (각5시간·덤5집반)

白(名人)曺薰鉉<2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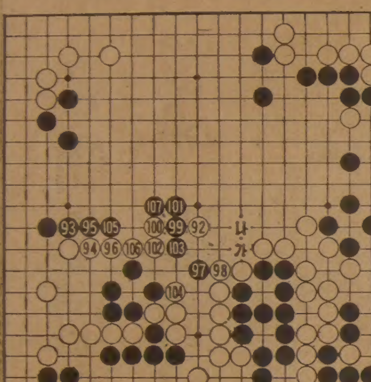
黑(挑戰者)徐奉洙<1勝2敗>

白92에 대해 黑이 98자리를 끊으면 白97, 黑「간」 白「나」로 참고도의 경우처럼 좌우가 연결된다. 92는 경계한 用兵이지만 黑은 93쪽을 밀어올려 계속 우세를 유지한다.

이래서 黑의 승리는 별탈없이 결정되어 가는가 싶었다. 그런데 도전자는 지극히 간단한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黑97, 99가 도무지 납득할수없는 억지행마였던 것이다. 이무렵 迎日齋 소강당의 해설장에서는 趙南哲8단이 80명남짓한 棋客들에게 참고도를 만들어 보이며 『黑97로는 이렇게 완생해야 필승의국세였다』고 못내 아쉬워했다. 그리고 白100에 대하여는 『이런수는 하수의양붙임이라하여 보통 두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이경우는 묘수』라며 신비스런표정을지었다.



대국실에서는 도전자가 고심 또 고심. 黑101로 빠져 아래쪽 黑5점을 깨끗이 포기했다. 결국 이곳 白집이 제법 크게 확정, 名人은 일단 추격을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黑은 105, 107의 좋은 수순을 거쳐 107로 위쪽의 세가 막강하여 다시금 우위를 과시한다.

때는 하오5시30분. 쌍방이 똑같이 3시간30분씩 소비하고 있었다. 【凡一】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구독신청은 533-2361

한국프로野球 선수不足

LA타임즈 "美마이너리그 下位수준"
우승팀 46게임서 凡失57개나
빈약한 地方球場 內野는 맨땅
팬들, 오징어·팝콘씹으며 스트레스 풀어

○○○○○○ 첫 출범한 한국프로야구는 제 궤도를 찾아가고있다. 밖에서 본 한국프로야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야구본고장 美國에 비친 한국야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최근 로스앤젤레스·타임즈紙에 실린 샘·제임슨씨의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

이곳 구장에서는 핫도그를 팔지않는다. 팬들은 마른 오징어를 훨씬더 좋아한다. 그리고 어떤선수도 메이저·리그에 갈만한 가능성은없다. 전기시즌 우승팀 OB베어스조차 40게임서 57개의 범실을 기록했다. 美國마이너·리그의 싱글A급(최하급)팀과도 비교할수 없을정도의 수준이 문제이다.

한국프로야구는 지난 3월27일 출범했다. 그러나 日本에서돌아온 프로선수 白仁天이 경험으로들려주듯 한국프로야구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프로야구개막이래 白仁天은 어떤의미에서 영웅이되었다. 어린이들은 스타디움에서 그를 에워싸고 사진한장을 얻기위해 아파트에 까지 뛰어든다.

MBC靑龍의 감독이며 지명타자이기도한 白은 19년간 日本 프로야구의 선수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귀국 결정 자체가 큰 모험이었다.

나이40의 白은 그때까지 日本프로 긴데쓰(近鐵)버펄로즈의 정규선수였다. 생애 통산 타율은 2할7푼8리. 그리고 한국프로야구의 전망은 밝지만도 않았다.

뜻밖에도 팬들의 열광은 대단했다. 그는 이제야 잘 생각했다고 마음놓는다.

아직도 문제는 많다. 팀은 문화방송주식회사의 일개 부서에 의해 움직인다.

白仁天은 동계훈련때의 경험으로 팀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한다. 그의 첫 주문은 볼 2백타였다. 『구단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읍니다. 그들은 한팀이 1년동안 볼하나를 쓰는것으로 생각하는듯 했읍니다』

구단주들도 골치가 아프다. 徐鐘喆커미셔너는 3년안에는 흑자전망이없다고 말하고있다. 그동안의 이익금은 6개구단에 똑같이 배분된다. 우승팀 OB뿐이나 꼴찌팀 三美뿐이나 똑같다. 프로야구기사가 고교야구나 기타 다른경기기사보다 크게취급되지도 않는다.

서울운동장이 3만명을 수용할수 있을뿐 나머지구장들은 그 반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내야는 맨땅이며, 외야잔디중에도 외야수가 선자리는 모두 대머리처럼 벗겨져있다.

사람들은 가장 자유스럽게 감정을 폭발시킬수 있는곳이 야구장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야구팬들은 대부분 다른 고장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고향에서 온 팀에 열광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적인 연고의식을 북돋우기위해 프로야구팀들은 그들의 연고지역고교 출신선수들로만 구성되도록제한되고 있다.

팬들은 형제처럼 선수이름을 불러대고 오징어, 햄버거, 팝콘을 씹는 아주머니들은 머리에 교묘히 바구니를 얹은채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을 세어준다.

한국프로야구의 진정한 문제점은 선수부족이다. 정말 우수한선수 몇명은 아직도 세계대회를위한 아마추어대표팀에 묶여있다.

海外연예

29일 베니스映畵祭
蘇, 두작품 출품해 관심 끌어

비엔날레로 불리는 베니스영화제가 오는 29일 개막된다. 이번 영화제에는 소련이 「고민」「사생활」 등 두작품을 출품, 관심을 모으고있다.

한편 개막제에서는 지난50년간 동영화제서 공개됐던 주요작품과 1930년대 할리우드에서 제작되었던 작품들이 리바이벌부문에서 재공개된다. 【ANSA】

壓死인부위해 굿
필리핀 필름센터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딸인 이메얘를 비롯한 마닐라 필름 팔레스간부 일동은 지난주 필름센터로비에서 원귀를 위로하는 푸닥거리에 참석, 함께 춤을추며 억울하게 숨진 원혼들을 위로했다.

지난1월 개최된 제1회 마닐라국제영화제를 치르기 위해 신축중이던 이 건물의 5층 슬라브가 지난해 11월 공사중 붕괴되는 바람에 많은 인부들이 숨지거나 부상을당했었다.

공식적으로는 7명이 숨진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소문에는 47명내지 2백여명이 숨졌으며 몇몇 시체는 아직도 시멘트속에 그대로 남아있는것으로 되어있다. 【外】

中共훈련담은 영화
홍콩서 일제히公開

中共의 군사력과 훈련장면을 담은 다큐멘터리영화 「북부중국에서의 기동훈련」이 홍콩의 10개극장에서 동시에공개됐다. 영어자막까지 넣은 中共의 다큐멘터리가 외국의 일반극장에서 공개되기는 처음이라고한다.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76>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양달 ⑪

『아、아녜요。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수지는 창피한 짓을 하다가 들킨것 처럼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오목이를 생각할때마다 싫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그렇게 바라본 자신의 모습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녀가 오목이를 놓쳐버린 이십년전 일을 될수있는대로 생각하기를 피하는것도 죄의식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무서운 일곱살적을 바라보기가 싫고 징그러워서였다.

자신을 바라보기가 싫을수록 수지는 남이 그녀를 바라보고、아름다와、고상해、지적(知的)이야 라고 말해주는걸 믿으려 들었고 그대로 행세하려들었다.

오목이가 동생 수인임에 틀림이 없는 증거를 보고도 오목이를 동생이라고 부르지못한것도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을 피하고자함이었다. 오목이를 피할수있는 한 그녀는 속속들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지적일수가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이런 허위를 목숨처럼 사랑하는한 오목이를 동생으로 맞아들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자신의 목숨을 눌러죽이는것 만큼이나 가망없는일이었다.

『오늘같이 좋은 날、왜 그렇게 우울해보이지?』

기욱이 근심하는 것도 같이、빈정거리는 것도 같이 물었다. 수지는 그런 웃음이 싫어서 얼른 피하면서 어색하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보여요? 미안해요』

『만일 그 작자 생각을 하고있었다면 나 기분 나빠。용서할수 없어』

기욱의 빈틈 없이 선사다운 얼굴에 비수처럼 번뜩 냉혹한 게 스쳤다.

『그 작자라뇨?』

수지는 정말 영문을 몰라 비명처럼 되물었다.

『이 여자 시침떼네。내 라이벌 말야。인재라고 했지? 아마』

『이미 지난 얘기예요。지금 그걸 들춰내서 어쩌겠다는 거죠?』

수지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분노에 떨었다. 그런 수지를 기욱은 빤히 바라다 보았다.

『지금의 그 모습에 거울이라도 들이대고싶군。마치 신성 불가침의것을 모독당한 얼굴이야。그 작자가 그렇게 정돈가? 놀랐어』

『야비한군요。다 알고 시작한 일이었잖아요。내가 숨겼던일도 아닌걸 들춰내서 새삼스럽게 나를 모욕주려 하다니 이해할수 없어요』

『숨겼다고는 안했어。라이벌이 있었기에 드릴있는싸움이었다고 오히려 그 작자한테 고마와하고있는 걸。그렇지만 앞으론 달라。내 여자에게 딴남자생각이 꾀어들게할순 없어』

기욱이 자신있게 못박은 말에 수지는 정말 자신의 육신이 피 흘리며 못박히는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수지가 허둥지둥 모면하고자 한 것은 박힌 못이 아니라 기욱의 부당한 오해였다.

『생사람 잡지말아요。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기욱씨처럼 부모 형제 고루 갖춘 복좋은 사람은 두손일때마다도지는 나 같은 사람의 이런 설움을 아마 모를거예요』

저절로도취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흥、그 작자에 대해선 이미 잊었단소리가 되겠군。그럼、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란가? 믿기지않아서 잊었노란가? 어느 쪽이야?』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투사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가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인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복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신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미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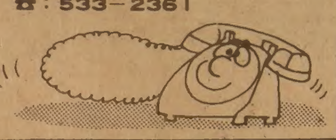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진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층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45-6792 (Mr. 우)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차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이 주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매니저 구함.
조건 : Stock인수. 주매상 : $9,000이상.
전화 : 881-4007 (Mr. 윤)

한국음식에 조예가 있으시고 약간의 중국음식도 하실수 있는분(Full Time, 남·녀관계 없음)
전화 : 284-5124

미싱 자수사 구함 - Juki Z 자수미싱으로 고급테이블, 침대 Cover에 자수하고 있음. Peace work 환영함.
700 Wilson Ave. Downsview (Dufferin & Wilson)

가게맡아서 하실분 구함(보증금 약간 필요)
매매도 가능. 오타와 지역.
전화 : 1-613-238-3837

Store Helper 구합니다.
(Don Mill & Eglinton)지역
전화 : 425-2905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 분
전화 : 439-6428, 431-7168 (Mrs.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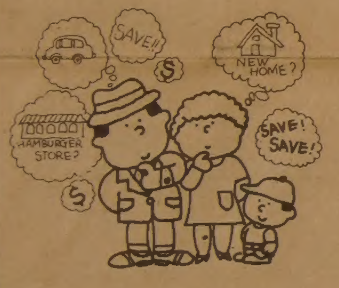
담배 안피우시는 분으로 입주하셔서 두 어린애 보아주시고 가벼운 가정일 돌봐 주실분. 대우 우대함. 목욕탕, 침실 따로 제공하며 매우 분위기 좋은 가정임. 8월20일부터 필요하며 오후 5시 이후에 연락바람.(416)889-7000(Mr./Mrs. Fenwick)타지방에서 문의하실 분은 Collect Call로 하셔도 됩니다.

구직

다운타운에 가까운 곳 또는 West Area
출퇴근하며 아기 성심껏 보아드리겠읍니다.
전화 : 423-3114 (Mrs. 신)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어린이들을 정성껏 보아 드리겠읍니다. Downtown지역.
전화 : 651-5388 (Mrs. 채)

5 일에 $ 13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매매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278-3975

Peterboro,근교 호수에 위치한 아름다운 Cottage Lot. (Water Front)을 급매합니다.
전화 : 929-9849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Variety Store for Sale (Hwy 10×Dundas)
주6일 Open. 주매상 : $4,300
Video Machine에서 월 최저 $1,000 보장.
리스 : 2년 + 5년, 렌트 : $750
가격 : 5만 + 스탁 (Mortgage 가능)
전화 : 276-3266

Store Equipment for Sale
Two Ice Cream Cabinet, One Electronic Scale(1b) & 기타.
전화 : 746-0107, 727-5902

Variety Store 매매.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주매상 : $9,000이상. 361 Carrville Rd.
Thornhill, ont., Hill Crest Mall 옆길.

Vancouver Downtown 좋은 위치.
단골 고객이 많은 성업중인 Discount옷가게, 건강상 매매.
년매상 : $180,000. 아스킹 : $39,000
리 스 : 2년+3년 옵션.
주6일 영업(10:00 a.m~6:00 p.m)
전화 : 239-2193

Pizza Take Out & Delivery (Downtown Area)
매우 성업중임. 346 Dundas St. E.
Ask for Domenic or Luigi

전망 밝은 모텔 매매
현대식 45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토론토에서 한시간거리에 상업도시에 위치. 10%의 Mortgage
Tom Szymanski
Yanka Realty Inc. 537-4156 or 755-9080

Variety Store (Rogers & Oakwood)
주매상 : $3,500
Patrick Ho. Real Estate. Jack 593-8967

한·영 사무용 Type Writer 구함.
Ball Type이면 더욱 좋음.
전화 : 499-3686 (오후 6시이후 연락바람)

Grocery Store (Montreal 지역)
주매상 : $6,000(포도주, Beer, 화초등도 취급)
아스킹 : $63,000 + Stock, 리스 : 3년 + 5년
이층에 5 Bed Rm.이 있으며 뒷뜰에 정원이 있는 일급주택가에 자리한 살림집도 타협에 의해 Rent 가능함.
전화 : 1-514-674-6845 (Mr. 박)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Variety Store
주매상 : $5,000이상. 리스 : 5년 + 5년
361 Windermere Ave. (Jane & Bloor)

Wallpaper & Paint Business for Sale
20년간 성업중인 최고의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
위치 : Kennedy & Lawrence. 아스킹 : $55,000
(매우 바쁘고, 확장 번창하는 Plaza안에 있음)
Store는 Air Con. 장치가 되어있으며 보기에도 깨끗함.
전화 : 266-3151 (Grace Becker) Royal Trust CORP. OF CANADA REAL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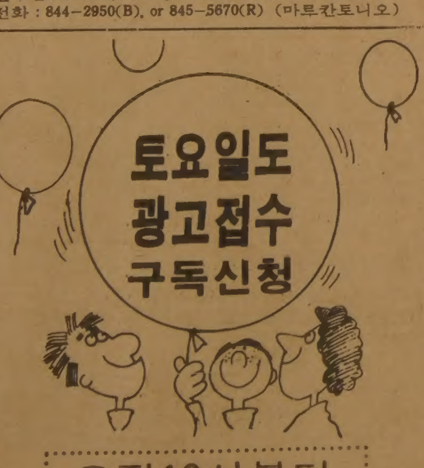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300
전화 : 699-4804

▲Two Door(5ft.) Ice Cream 냉장고(중고)
▲8.5 Galon 대형 Slush 퍼피머신(중고)
전화 : 690-2216 (Mr. 최)

Pharmacy & Variety Store for Sale
원하면 건물도 매매 가능함. 주매상 : $10,000
(투자가치가 좋음) 서부지역. 전화 : 781-2560 (Sarkis)

Downtown에 있는 식당매매(가족끼리 하기에 적합)
월수입: $11,000. 아스킹: $65,000(주류면허 있음)
전화 : 844-2950(B). or 845-5670(R) (마르칸토니오)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한국일보광고부

가게렌트

성업중인 Grocery Corner Store Business for Rent.
안전하고 발전성있는 투자.(Franchise)
전화 : 259-2123

아파트렌트

One Bed Room 아파트 세놓읍니다.
$325/M. College & Dovercourt
전화 : 531-6183

방세놓습니다. 노인부부 환영함.
Pape 써브웨이에서 1블럭거리
전화 : 282-0236, 466-3764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분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 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8.15경축전캐나다교민체육대회

일 시 : 1982년 8 월14일(토요일)
오전 8 시30분

장 소 : Centennial Park Main Stadium
Centennial Park Dr.
Etobicoke, Ontario

연락처 : 체육회 ☎ : 533－9336

※참고 : 주장회의를 8월7일(금요일) 5시 본회 사무실에서 갖겠읍니다.

경기프로그램

시 간	선수구분	경기종목	경 기 방 법	경기구분	선수
11 : 00	유치원생	과자따먹기	25미터 달려가서 과자 따먹기	개인	무제한
	중학생	100미터경주		단체	4인조
11 : 30	국교생	공바구니 넣기	2분간 바구니에 공 던져넣기	단체	10인조
	고교생	100미터경주		단체	4인조
12 : 00	대학생	100미터경주		단체	4인조
	일반(부인)	공굴리기	공을 굴려 25미터 지점을 돌아오는리레이	단체	10인조
12 : 30	노년	통치기	25미터 지점의 통을치고 오는 리레이식	단체	10인조
13 : 00	일반	단체축구결승전	단체대항으로써 8월7일 예선전을 거침	단체	
13 : 30	유치원생	바구니 터트리기	장대 위의 바구니 터트리기	단체	10인조
14 : 00	국교생	200미터리레이	한학생이 50미터씩 뜀	단체	4인조
	노년	바늘귀 끼기	25 미터 달려가서 바늘귀 끼고오는 리레이	단체	10인조
14 : 30	중학생	400미터 리레이	한 학생이 100미터씩 뜀	단체	4인조
	노년	공나르기	25미터 지점을 돌아오는 리레이식 공나르기	단체	10인조
15 : 00	고교생	200미터 경주		개인	무제한
	일반	줄다리기		단체	20인조
15 : 30	대학생	1.500미터 경주		개인	무제한
	일반	씨름		개인	무제한
16 : 30	유치원생	세발자전거리레이	한학생 100미터 리레이	단체	4인조
	중학생	장애물경주	200미터 경주	단체	4인조
17 : 00	고교생	기마전	4명 한조로 3개조까지 출전할 수 있음.	단체	10인조
17 : 30	일반	축구결승전	체전과전 선발 결승전		무제한
18 : 30	일반	마라톤	10키로 마라톤	개인	무제한
19 : 30			복권추첨		
20 : 30			폐회		

체육대회경축 교민위안의밤및 복권잔치

공 연

—최정자 : 처녀뱃사공, 처녀농군
—김하정 : 살짜기옵서예, 야생마
—배 성 : 망향

—최고코메디안 배삼룡

복권상품 내역

- 서울왕복항공표 1매(서울여행사)
- 서울왕복항공표 1매(신세계여행사)
- White fox목도리 1장(미도파백화점)
- 크리스찬디올 고급선그라스 1(불루어안경)
- 고급카메라 1대(Kim's 카메라)
- 골프셋(무나미트로피)
- Locking Chain(에코시가구점)
- 대형전자올갠 $700상당
- 민중신문 영구구독권
- 코리언저널 영구구독권
- 고급 시계만년필(2개)
- Car Watch 1개
- Digital clock 1개
- Travel Bag 2개(조충원)
- 손목시계 Y & Y TRADING(유용근) 10개
- 다우젠드아일랜드 버스, 유람선 관광왕복권(제일여행사)
- 북경 호골약주(Big Seven)
- 보약 1제 $600상당(아세아한약방)
- 브리태니카백과사전 $1,490상당(송영)

※ 계속 접수중.

제 2 회 전캐나다교민체육대회

경 축

서울여행사, 신세계여행사, 한국비데오, 한국관, 코리아하우스, 클링톤하우스, 아리랑하우스, D.Y.IMPORT, 동양식품, 삼복식품, LISBON 오토, O.K.오토, 노스욕 오토, 무나미트로피, 브랜돈스포츠, 에코시가구점, 쌍방울메리야쓰, 미도파백화점, 거북이선물센타, 하르빈한약, 아세아한약, 이대환부동산, 김종조 종합보험, 뉴 서울, 오리엔탈 팔레스, 은하보석, 칠성인쇄, 신의상사, 아카데미 T.V, 불루어하드웨어, 케네디꽃집, 다우스꽃집, 대한항공, CP AIR, 외환은행, 한일은행, 조홍은행, KOTRA, 실업인협회

후 원 : 주캐나다대사관, 코리아타운번영회, 코트라, 코리언저널, 교역자협의회, 노년회, 대한항공, 동우회, 민중신문, 무역인협회, 몬트리얼총영사관, 뱅쿠버총영사관, 실업인협회, 올림픽후원회, 외환은행, 재캐나다한인부인회, 조흥은행 ,토론토한인회, 토론토 총영사관, 토론토 한국일보, 한인신용조합, 한일은행, 한인연합회, 한인대학생회

주최 : 재캐나다 대한체육회